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7.7/8

저/역/자/외/역/자/원/작/자

서울시 동구 광암동 30-1 여성문화의 집 3층 (우) 100-311 (T) 02-275-6215 FAX 02-275-6215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 어디서 얻습니까?”

정보 제공

- PC통신에 '어린이집·놀이방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시설 홍보

- 현재 전국의 5천여개 어린이집, 놀이방이 PC통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보내주시면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에 광고해 드립니다.

교사 알선

- 선생님을 구하려는 시설과 보육사업에 함께 하실 예비 선생님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로 직접 신청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하여 원하는 분들을 만나십시오.

연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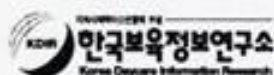
- 보육사업의 전문 영역 연구와 정보개발을 통해 더 나은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정책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놀이방 정보이용

- 천리안 : GO BABY
- 하이텔 : GO BEBO
- 유니텔 : GO BEBO



본 화면은 하이텔 제공 화면입니다.



서울 중구 목정동 18-27 대학문화원 426호 · TEL. 02)268-3954/271-1547~8 / FAX. 02)271-1548 · ID. KDIRBEBO(하이텔) ZPIBABY(천리안)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7.7/8



자/역/사/외/탁/여/△/연/접/외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우리네 아이들

97.7/8월호

<통권 52호>



<표지사진>

영차 영차...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그래도 셋이 힘을 모으니까 이
렇게 커다란 나무토막도 들 수
있어요.
이렇게 힘을 모으면 안되는 일
이 없겠죠?
(사진 / 수원 용기중기어린이집)

일하며 생각하며 / 3

맘으로 빛은 새 출발

장미경

보육정책 / 5

일본의 유보일원화 논쟁에 대한 일 고찰

최영신

여성정책 / 16

2002년까지 실행되어야 할 여성정책 30대 주요과제

한국여성단체연합

기획특집 / 21

지난 날들, 지금 그리고 앞으로를 생각하며

위양자

통신이야기 / 25

편지보내기과 편지받기

이강선주

일본연수일지 / 30

일본 장애보육의 감동을 회원들과 함께

안나의 소동

박화명

'고모도의 가(家)'에 갔던 일

이현경

장애아 부모회 교류 하이킹을 다녀와서

박찬주

장구나베즈와 기지무나아를 소개합니다

지연

부모교육 / 35

TV, Video,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정희연

좋은 그림책 소개 / 39

함께 세어보아요

오윤정

짜·임·새

연장교육 / 41

문유미

인권보육 커리큘럼에 대한 감상문?

연장소식 / 43

이경미

인천보육교사회의 저력을 아시나요?

여름특집(1) / 45

편집부 엮음

황금 같은 휴가, 어디 훌훌 떠나볼까요?

편집부 엮음

별미로 아이들 입맛을 찾아주자!

국제연수 / 53

김진숙

일본 보육연수 일기

이강선주

일본연수를 다녀와서...

육아일기 / 59

나은미

유빈이도 반항기?

세상일기 / 61

위양자

보육교사로 6월항쟁 10주년을 맞으며

특이소별곡 / 63

다우리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

오사카에서 온 편지 / 65

변미양

1997년 오사카의 5.18

보육계풍향 / 67

소식과 소식 / 68

편집부에서 / 69

1997년 7/8월호(통권 52호)/첫발행
1992.5.25./피넛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피넛이 남미영/등은이 박정
애, 황미례/피넛날 1997년 7월10일

일하며 생각하며

.....

땀으로 빛은 새 출발

장미경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이사, 한국소비자연맹 춘천지부 총무

지략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국한 후 차일피일 인사를 미루다 보니 하필 지략연 제호로 나가는 「우리네 아이들」 마지막호가 될 거라는 편집부의 귀뜸을 듣고 더욱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애초 미국에 머무는 동안 보다 바람직한 탁아정책의 모델을 개발해 보겠다던 스스로의 다짐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있던 터이기 때문입니다.

조국에 돌아온 소감을 적어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중학교 3학년이 된 제 딸아이의 작문에서 한 귀절 빌리기로 하겠습니다. 미국에 처음 도착해서부터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차례로 소개하던 이 아이는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했더군요.

한국에 돌아와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미국에서 살고 싶더냐, 한국에서 살고 싶더냐'고 물으셨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대답했대요. 선생님께서는 '너는 어쩔 수 없는 토박이 한국인구나'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는 그 크고 멋진 곳도 많은 그 나라, 시설이 한국과는 전혀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았던 그 학교에서 어떤 싸늘함을 느꼈다고 곳곳에 적고 있었습니다. 다시 비좁고, 덥고, 먼지가 종일 푼푼 날리는 교실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땀 흘리고 있는 것이 더 행복한 모양입니다. 서로 부대끼고 고민하는 가운데 같이 찾아가야 할 곳이 있는 내 고향, 내 땅만한 곳은 이 세상 어느 구석에도 없는 것이라고 공감합니다.

「우리네 아이들」의 마지막호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듣고는 지난 일들을 한꺼번에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탁아문제에 관한 글을 써보겠다고 장농 천막촌으로, 창신동 산동네로, 회현동 뒷골목으로 찾아다니던 때 그곳에서 만난 선생님들, 그리고 그때 가슴이 뭉 막히게 느껴야했던, 어떤 감동부터 생각하게 되구요. 지략연의 초기 모임들과 서로 나누던 이야기들도 생생합니다. 탁아소라는 말을 하는 것조차 무슨 불순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고, 복한의 집단 생활을 연상시킨다며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들 앞에, 어린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온몸을 던져 땀으로 범벅이 된 모습으로 서있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

니다. 그런데 그만큼 세월이 흐른 모양이지요. 이제는 우리네 아이들 함께 돌보자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정치하는 이들의 입에서도 나오게 되었고, 복낙의 아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우리 앞에 다가서 있습니다.

그동안 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몇번이나 옮겨다닌 끝에 얻게 된 지금의 안정된 사무실까지, 어머니 큰잔치, 어린이 한마당, 각종 집회와 시위,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기까지의 노력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연합회까지의 일련의 흐름을...

그리고 다시 태어나려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아직 해야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지만 우리의 내일이 있습니다. 십이년 전과는 엄청나게 달라진 오늘의 상황이 있기까지는 지략연의 땀과 노력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알알이 배어있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보육시설의 수가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아졌고, 또 늘어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우리가 항상 고민해 왔던 것이 보육의 질 문제입니다. 이제 교사회로 거듭 나는 지략연은 보다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토론했어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육교사들의 자질을 향상하며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몰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수레처럼 짊어지고도 다양한 일들에 밀려 그 장을 한껏 펼쳐오지 못한 감이 있었지요. 지략연 모든 가족의 소망이 모여져 새출발을 하게 된 새 마당에서 보육교사들의 결집체로 힘차게 열어가길 새날을 기대합니다.

다시 우리들 만남의 소중함을 떠올립니다. 모두가 땀 흘리며 일하면서 건네는 아름다운 눈빛과 미소를 간직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가 나누어온 수많은 이야기의 웃음이 새로운 결실의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어린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온몸을 던져 땀으로 범벅이 된 모습으로 서있어야 했던 시절.

...

그리고 다시 태어나려는 지략연의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아직 해야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지만 우리의 내일이 있습니다.」

보육정책

일본의 유보일원화 논쟁에 대한 일 고찰

최영신 · 오사카시립대학 대학원 생활과학연구과 사회복지연구실 박사과정
본회 전 정책연구부원

목 차

이 글은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학회지 제10집' 자유기고 논문년에 실린 것으로, 6월호 윤선영님의 독일사례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유아교육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고자 일본에서 공부하고 계신 최영신님의 송낙하에 논문 전문을 실었습니다.

- I. 서론
- II. 유보일원화 논쟁의 역사
- III. 유보일원화 형태 및 논의점
- IV. 유보일원화 논쟁에 대한 검토 및 과제

I. 서론

일본에서는 현재 적어도 만3세 이상의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집단보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폭넓게 인정되어지고 있다. 요컨대 집단보육이 어린이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

일본의 보육시설은 영아 및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아동복지법), 유치원은 만3세 이상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학교교육법), 만3세 이상의 유아의 보육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서 이원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이러한 유아보육시설의 이원체제를 고쳐, 하나의 체제로 통합하여야 한다는 것이 유보일원화론자의 주장이다(田村和之, 1985: 114). 유보일원화란 모든 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간에 보여지는 여러가지 격차를 시정하고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持田榮一, 1972: 11). 그 주장의 근거는 유보이원화 체제 하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각각의 주어진 목적, 성격에 의해 제약을 받고 운영되므로, 유치원과 보육시설간의 격차를 초래하여 아동의 보육에 차별과 혼란이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의 보육을 받을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보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田村和之, 1985: 114). 즉 어린이의 권리의 관점에서 보면 가정의 형편에 따라 어린이가 다른 장소에서 상이한 처우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유보일원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궁극적으로는 유보일원화에는 찬성하지만, 유보일원화는 어린이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보육시설이 가진 복지기능을 한층 충실히 하는 방향으로 구상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보일원화의 구상은 복지와 교육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을 주로 하는 일원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반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보육이 결손된」 아동이 아니라, 「가정에서 보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아동에게」 가정만으로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는 협의의 교육을 행하는 장이다. 이에 비해 보육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이며 「보육이 결손된」 아동, 즉 「가정에서 보육을 받는 것이 어려운 아동」을 부모에 대신하여 보육을 행하는 장」이다. 따라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사회적으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유보일원화에는 많은 과제가 따른다. 특히 보육시설이 담당하고 있는 「보육이 결손된」 아동의 복지와 여성의 노동권보장이라는 역할은 현재 협의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유치원에서는 보장되기 어렵다. 또한 최근에는 보육시설이 지역, 가정의 양육력이 저하하는 것에 따른 다양한 보육니즈에 대응하는 역할을 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복지적 발상이 희박한 유치원에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보육시설을 유치원화하여 일원화시키려 하는 것은 아동복지를 후퇴시키려 하는 것이며, 여성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것이다.(堀正嗣, 1985: 70-71).

이러한 유치원과 보육시설간의 일원화논쟁은 1926년 「유치원령」의 조문에서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역사적 과제라 할 수 있다. 한편, 그 주장의 내용은 각시기의 주요 이익집단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항상 일관된 내용은 아니었다.

본고에서는 현실적으로 유보일원화체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음에도, 끊임없이 일원화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일본에 있어서의 유보일원화논쟁의 역사적 경과와 그러한 과정에서 제기된 유보일원화의 문제 및 형태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유보일원화 논쟁의 역사

1926년 「유치원령」에서 처음으로 부모가 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가정교육을 행하는 것이 곤란한 자가 다수 살고 있는 지역에 유치원을 보급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유치원에 탁아소적 기능을 갖게 해야 한다는 조문을 삽입함으로써 유보일원화의 논쟁이 제기되었다(小館靜枝, 1984: 70). 그리고 학계의 움직임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 호우세이대학(法政大學)의 시로토한타로(城戸幡太郎)를 중심으로 「보육문제연구회」가 조직되었는데, 이 보육문제연구회에서 어린이들의 성장발달단계를 기반으로 하는 유보일원화구상이 제안되었다(曾和信一, 1984: 24). 그 내용은 「취학전의 교육은 유아의 정신발달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만3세 이상아의 보육과 만3세 미만아의 보육을 구별해야 한다. 유치원은 만3세 이상아를 보육하고, 만3세 미만아는 신체의 양호¹⁾를 주로 하는 보육시설에서 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령」의 개정과 더불어 새롭게 「보육시설령」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시로토한타로(城戸幡太郎)의 「유보일원화론」은 보육시설에 재직하고 있는 만3세 이상아를 유치원으로 통합하려 한 것이었다(池田祥子, 1985: 19).

그러나 이러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보일원화론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이소쇼유코(伊蘇祥子)는 지적하고 있다. 즉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에 크게 다른 점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쌍방의 양적 보급도이다. ...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있어도 「유보일원화」는 그 나름대로 활

1) 일본에서 「양호(養護)」란 「보호」와 「보육」을 합친 개념으로써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발하게 계속적으로 논의되어왔다. 그렇지만 실제로 종전직후의 양적 보급도는 양시설 모두 1할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취학이전의 압도적으로 많은 어린이들은 유치원도 보육시설에도 다니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 혹은 논, 밭, 들, 도로 등에서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보일원화론』은 현실성·근박성이 부족하여, 관념성을 면치 못했다고 할 수 있다. (曾和信一, 1984: 24).

1946년에는 후생성사회국이 부랑아대책을 중심으로 하여 아동보호대책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아동국의 설치와 아동보호법의 제정에 힘을 기울였다. 이 아동국을 중심으로 하여, 후생성은 보육시설의 양적 보급과 더불어 「이중간판론」을 제기함으로써, 보육내용에 있어서도 유치원과 공통방향을 도모하려고 하였다. 이 「이중간판론」에 대하여, 1947년 8월5일 아동국의 답변자료로써 「아동복지법안수조설명(兒童福祉法案遂條說明)」이 제출되었다. 이 답변은 「아동복지법안 제37조에 따르면 보육시설은 매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그 영아 또는 유아를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 따라서 「보육」은 학교교육법의 현실에 따른 유치원의 보육과는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보육내용은 유치원의 내용에 따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보육시설 경영자가 유치원의 보육내용에 따르려고 할 때에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이중간판을 걸면 된다. 유치원이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호자의 노동기간 중 유아를 맡으려 할 때에는 이 법률에 따른 보육시설의 간판을 걸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후생성아동국이 제안한 이중간판론은 보육시설을 유치원의 보완과 종속의 관계로써 다루려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유보의 제도적 일원화를 제안한 논리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에 대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조직된 보육문제연구회는 민주보육연맹을 결성하여 대항하였다. 이 민주보육연맹은 아동복지를 위한 기본법으로써 통일법안인 「모성 및 영유아복지법」으로 입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법안은 「영유아의 완전한 옹호」와 「여성의 사회적 해방」을 통하여 모친과 어린이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함으로써, 유보일원화를 이루려고 하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후생성은 민주보육연맹의 이러한 의견을 따르려 하지 않았으며,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이러한 유보일원화의 방향과는 반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것은 행정권한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자의 상이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당시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후생성과 문부성의 행정적 권한의 확보 다름에 힘쓸려, 서로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원적 관계를 강화하려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후생성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사회적 기능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일원화가 현재 빈번하게 주장되어지고 있지만,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유치원은 학교교육법에 근거하여 유아교육의 일환으로써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설이다. 따라서 그것은 교육이 가능한 만3세부터 초등학교 전까지의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육시설은 보호자의 노동·질환 등에 의해 보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입소시켜, 아동이 필요로 하는 보육을 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아동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고도의 요구라고 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충족이기 보다는 아동의 생활권에 관련되는 것이다. (池田祥子, 1985: 22). 이렇게 하여 당시의 보육시설은 교육과는 확을 그은 사회복지(아동복지)시설로 한정 지워졌던 것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권한을 스스로 문부성에 위탁하여버렸다고 할 수 있다.

1951년에는 아동복지법의 제5차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동법 제39조에 「보육이 결손된」이라는

조문이 첨가되게 되었다. 즉 보육시설이 종래 일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개방되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유치원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을 「보육이 결손된」 아동에 한정하고, 그밖의 아동들을 배제하려 하였던 것이었다. 이러한 개정이 의도하는 것은 민주보육연맹으로 대표되는 운동론으로써의 유보일원화를 없애기 위한 수단이며, 더욱이 보육시설의 건설의 재정적 부담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카신이치(曾和信一)는 지적한다(曾和信一, 1984: 26).

한편 이러한 후생성의 동향에 대한 문부성의 대응을 보면, 1950년대에 이르러,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구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육」이라는 용어가 의도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1951년 5월에는 유치원교육요령편집위원회를 발족시켜, 「보육요령」을 「유치원교육요령」으로 명칭을 바꾸어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 「유치원교육요령」은 1956년에 법적 구속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보육」을 대신하여 「유치원교육」이 등장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는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장기종합교육계획」을 구상하게 되었으며, 1965년에는 유네스코성인교육위원회에서 「생애교육론」이 제창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일본에서도 법규상 「학교」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부가」적 존재이었던 유치원교육이 인간의 생애에 있어서 장기교육과정의 출발점으로써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61년 7월에 제네바의 「국제공교육회의」에서 취학전 교육문제가 의제로써 다루어졌던 것에도 영향을 받아 1963년 3월 당시 문부성장관의 개인적 발언에 의해 5세아의 취학의무화가 논의되었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1963년 문부성은 유치원진흥책과 5세아 취학의무화를 계획하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관계를 조정하려 하였다. 이것은 5세아는 물론 4세아, 3세아까지의 유아교육의 대상아동이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쌍방에 재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5세아의 취학의무화가 과제로 될 경우 그 구체적인 방법을 둘러싸고 어떻게 해서라도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공통견해를 찾지 않으면 안되었다. 원래 문부성이 생각하는 유아교육은 만3세 이상아로 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로 되는 유보관계 조정도 당연히 만3세아 이상에 한하였다(池田祥子, 1985: 23).

1963년 10월의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관계에 대하여」라는 「후생·문부성 양국장연명통달(兩局長連名通達)」은 교육과 아동복지의 2가지의 사회적 기능의 상이점을 명확히 하였다(池田祥子, 1985: 23). 그러면서도 보육시설에 재적하는 만3세 이상아에게도 문부성의 유아교육행정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하였다. 즉 「유보양자는 명확히 목적, 기능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각기 충분한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에 있어서는 앞으로, 5세아 및 4세아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통지하였던 것이었다(永野治男, 1984: 20).

이러한 점에서는 보육시설 관계자도 이론(異論)이 없었으며, 문부성과 후생성은 각각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커리큘럼의 변경을 행하였다.

문부성은 유치원교육요령의 개정의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하여, 교육과정심의회의 답신을 받아 들여, 1964년에는 「개정유치원교육요령」을 공시하였다. 이 교육요령에서는 보육시설과는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유치원교육의 방식이 명확하게 만들어졌으며, 교육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커리큘럼의 기준이 공시되었다.

한편 후생성은 공동통지의 방향으로 보육커리큘럼의 작성에 힘을 기울여, 1965년에는 「보육시설보육지침」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1973년 일본정부는 소위 오일쇼크의 영향에 의해 경제적으로 저성장을 나타내게 되자, 유아보육(교육)제도와 내용의 변경을 대폭 개정하려 하였다. 따라서 다시금 유보일원화론을 검토

하게 되었으며, 1971년에는 중앙교육심의회답신에 의해 '초등, 고등교육의 개혁에 관한 기본구상' 안에서 '유치원교육의 적극적인 보급충실'이 제안되게 되었다. 이는 중앙교육심의회답신에 '5세아 희망자 전원취원',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통합한 유아학교 구상', '유치원교육과정의 기준의 개정', '학교법인유치원의 적극적인 육성' 등이 새로운 제안으로 추가되었던 것이다. 이의 기본시점은 학교교육으로의 유치원진흥에 있었다. 이러한 점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보육시설과의 관계조정안이 제안되었다(池田祥子, 1985: 23-24). '보육시설과의 관계에 대하여 경과적으로는 "보육이 결손된 아동"은 보육시설에 있어서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당면의 목표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치원으로써 필요한 조건을 구비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유치원으로써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曾和信一, 1984: 28).

이러한 중앙교육심의회답신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관련자, 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주요한 비판의 내용은 보육시설을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 위치지워 보육시설을 유치원에 종속시키려 한다는 것이었다.

이 중앙교육심의회답신이 제출되었던 날과 같은 날 중앙교육심의회답신의 비판으로 '보육시설에 있어서 유아교육의 존재방향에 대하여'가 발표되었다. 이 비판의 내용은 '유치원에 있어서 단시간의 교육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동은 집에 돌아간 후에도 보호자의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비하여 보육시설의 아동에 대한 보육은 장시간에 걸쳐 보호자를 대신하여 양호와 교육을 불가분하게 일체화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본래 그 목적과 기능을 달리하고 있는 시설이다. ... 현단계에 있어서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형식적으로 일원화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양자를 병존시켜, 양자가 사회적으로 혼동되는 문제점을 시정하여 가면서, 각자의 목적 및 역할의 차이에 따른 각각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즉 이 비판은 중앙교육심의회답신에 반발하여, 보육시설에서의 아동의 보육의 필요성과 독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독자적인 역할과 그 기능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치원교육에의 종속보완론을 비판하고 있다(曾和信一, 1984: 29). 이에 유보간에는 심한 대립을 보이게 된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는 유보일원화에 대한 찬반의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堀正嗣 1985: 67). 이러한 배경에는 행정개혁에 의해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억제하려는 방향으로 일원화를 검토하는 정부자민당과 연결되어 있는 사립유치원의 움직임이 크게 작용하였다. 즉 유치원인구의 감소에 따른 입원대상자 감소, 부인노동자의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입소희망자 증가라는 타격 위에 국가의 보조금(사회진흥조성금)이 1984년에 중단되게 되는 사립유치원측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되었다(松川和照, 1983: 16). 당시 유치원의 7할 정도가 사립유치원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립유치원의 경영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국가보조금의 지원방법에 대하여 3가지로 분열되어있던 사립유치원 3단체(일본사립유치원연합회, 전국학교법인유치원연합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가 이해의 일치를 전제로 하여 '일원화'에 대한 합의를 보게 되었다. 1984년 4월23일에 결성된 전일본사립유치원연합회가 그 조직이었으며, 이 통일조직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보일원화론'을 주장하게 되었다(石毛鏡子, 1984: 194). 이는 만2세아까지의 시설과 만3세아 이상의 시설로 나누어, 만3세아 이상을 전면적으로 유치원에 입소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또한 보호자가 직접 희망하는 시설을 자유계약에 의해 선택하게 하는 직접조성방식을 제안하고 있었다.

이것은 비교적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조치제도를 전면적으로 해체하여 보육시설을 사립유치원화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원화의 방향은 당시 문부성의 교육개혁의 방향과 같은 기반을 가졌으며, 국고부담률을 인하하는 '유보일원화'의 전제조건을 정비하는데 주안을 두었다(石毛鏡子, 1984: 195-199).

더욱이 1984년 9월 '임시교육심의회'는 가정의 교육적 역할의 활성화와 근린지역사회의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유보문제에 대하여 모친의 직장진출의 증가, 형제자매 없는 아이가 증가하는 경향 속에서 보육이나 집단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취학전의 유아의 시설교육에 대하여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기능의 공통의 방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石毛鏡子, 1984: 192).

유보일원화를 임시교육심의회를 통해 추진하려 하는 이러한 견해는 전술한 것처럼 국가와 지방자치체의 재정부담을 회피하려는 방향으로의 일원화와 사립유치원의 움직임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들의 유보일원화의 주내용은 '앞으로 유치원은 장시간의 보육을 행하고, 만3세 이상아를 인수하며, 유치원이 없는 지역은 보육시설이 보완하고, 만3세 미만아는 보육시설이 인수하여, 이러한 이중부자를 멈추게 한다'는 것이었다(松川和照, 1983: 17). 즉 만3세 미만아는 보육시설, 만3세 이상아는 유치원으로, 어린이를 연령에 따라 유치원과 보육시설과 구분함으로써 보육시설에 지출되고 있는 보육시설조치비의 국고부담금을 유치원, 보육시설의 양방에 적용시키려는 것이었다(全國保育團體連絡會, 1984. 4: 21).

이에 공립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운동단체인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은 1985년 8월에 '보육일원화에 대하여'라는 메모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밝혔다.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도 아동의 보육의 방향에 대하여 기본목표를 보육일원화에 둔다. 왜냐하면 현행의 이원체제가 어린이에게 초래하는 피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유보일원화는 어린이의 입장에 서가 아니라 부모의 취로의 유무 등의 조건에 의해 어린이의 생활을 분리시키고 있어 어린이들의 근린생활망에 있어서의 공동놀이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保育労働運動研究會, 1986. 1: 139). 또한 보육시설을 보는 시각 및 모친의 취로에 대한 편견 등의 사회적 차별의식을 초래하며, 보육료를 결정하는 구조의 차이, 요금수준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조치비에 따른 과대한 공비가 지출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는 상황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일원화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원화를 현행의 유치원형태로 또는 보육시설 형태로의 어느 한 형태로 집약시켜가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한가는 아동과 부모가 처해져 있는 생활실태에 따라서 지역, 자치단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어떠한 보육형태를 취할지라도, 아동들이 윤락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육재정이나 정책의 방안이 모든 아동에게도 평등하도록 일원화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保育労働運動研究會, 1986. 1: 139-140).

또한 보육3단체(사회복지법인 전국사회복지협의회전국보육협의회, 사회복지법인 일본보육협회, 사단법인 전국보육원연맹)는 유치원단체에 제안하는 유보일원화구상에 반대하면서, '보육에 결손된' 아동이 유치원측이 제안하고 있는 연령구분에 따라 유치원에 등원하여 오전 중에는 모든 아이들과 함께 보내지만, 오전일과가 끝난 후 많은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오후부터 저녁까지 단지 보호만을 행하는 보육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 '아동들에게 초래되는 영향은 무엇인

가, 즉 소수의 아동들만이 저녁 5시-6시경까지 부모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생활하는 것일까, '저녁 7시경까지의 연장보육이나 야간보육까지 필요한 아동들은 어떠한가', '또한 겨울, 여름방학중에 이러한 아이들은 어떻게 생활하게 되는 것일까'라면서 유치원의 보호만을 행하는 장시간보육의 주장에 보육3단체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 양호'를 분리한 사고방식으로 어린이들의 생활을 무시한 발상이다. 보육시설에서 '보육'은 어린이들의 매일 24시간이 가정, 보육시설, 지역사회라는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에서의 생활은 등원부터 저녁의 귀가까지의 생활전반을 배려하여, 교육적인 활동과 가정에 대신한 생활습관의 자립을 위한 지도를 행하고 있다. 여기에 '양호와 교육을 일체로써 행한다'라는 보육시설의 특징이 있으며, 모든 아동이 같은 일과를 보내고 있으므로, 장시간동안 보육시설에서 생활을 하여도 아동들이 안정되게 생활을 할 수 있다. 즉 유치원이 '장시간보육'이라고 칭하면서, 많은 어린이가 집으로 돌아간 후, 소수의 아동만이 장시간보호만을 받는 보육의 형태를 취하는 방침은 경영을 위주로 하여 어린이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논리이며, 일하는 보호자의 문제, 보육에 결손된 아동의 문제를 경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全國保育團體連絡會, 1984. 4: 24-25)

이러한 대립에 부딪혀 1987년 4월의 최종답신(제3차 임시교육심의회 최종답신)에서는 현행의 이원체제를 존속하는 견해(待井和江, 1991: 107)를 취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유치원, 보육시설은 취원희망, 보육ニーズ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각의 제도 안에서 정비를 추진할 것. 더불어 유치원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 등에서의 시간연장을, 보육시설에 있어서는 임시적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적 계약을 도입하는 등 양시설의 운용을 탄력적으로 추진하여, 가정이나 사회의 요청, 변화에 유연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각각의 보육형태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유아교육의 관점에서 양자의 특징, 지역의 실정에 근거하여, 공통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답신에 의해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이원적으로 제도적 충실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육내용중의 교육적 기능에 대해서는 공통적 방향을 목표로 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國際子ども研究所, 1995: 14-15).

이러한 답신을 받아들여, 문부성은 교육과정심의회에서 '교육요령'의 개정을 해야하고, 1989년 3월에 '신유치원 교육요령'을 고시하였다. 한편 후생성에서는 아동복지심의회의 의견구신(意見具申)에 의해 '보육시설보육지침'을 개정하여 1990년도부터 시행하였다.

이러한 행정지시에 따라 유치원은 문부성, 보육시설은 후생성이라는 이원체제에 의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4.5세아의 대부분이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욱 현저해지고 있는 아동수의 감소에 따른 정원의 부족현상에 의해 지역에 따라서는 보육시설의 유치원화, 또는 유치원의 보육시설화라는 양자가 혼용되고 있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國際子ども研究所, 1995: 14-15).

199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서 유보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1995년 '전국정촌의회의장회(全國町村議會議長會)'에서는 아동복지대책의 강화방안에서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기능분담에 대하여 조속히 검토를 하여, 보육과 유아교육의 수요에 적합하도록 설치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한다.'라고 제안하고 있다(全國保育團體連絡會, 1996. 1: 10). 또한 지방자치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1996년 12월20일에 '제1차권고'에서, 제도론으로써 유보일원화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았지만, 지역에서의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연휴강화, 시설의 공유화 등의 추진을 건의하고 있으며, 이 1차권고를 받아들여, 정부는 1997년 2월 20일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시

설의 공유화 등 22항목을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다(全國保育團體連絡會, 1997. 3: 20).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논쟁의 역사 속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보일원화의 형태 및 주요 논의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III. 유보일원화의 형태 및 논의점

유보일원화를 목표로 할 경우, 유보의 무엇을 일원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으나, 중앙아동복지심의회의 보육대책부회에서의 논의에서는 다음의 5가지 형태를 들고 있다(小宮靜枝, 1984: 71).

첫번째는 '완전일원화형태'이다. 이것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완전히 일체화하여 동일제도에 단일시설로써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경우 일원화하는 이점은 있지만, 학교교육법과 아동복지법을 결합한 법률과 후생행정의 대개혁이 필요한 점, 더욱이 사회보장정책으로써의 요보호에의 보장문제가 큰 문제로써 남는다.

두번째는 '유보부분병존형'이다. 이것은 동일한 시설 내에 유치원부인과 보육부인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형태이다. 이 형태는 유보의 일원화의 요청에는 형태상으로는 일치하고, 지역 내에서의 시설배치의 조정은 용이하지만, 동일한 시설 내에서 상이한 아동처우는 사실상 무리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일원화에 지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세번째는 '보육시설의 유치원기능 포함형'이다. 이것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보육시설에서 유치원 해당연령아에 대하여 유치원과 동일한 커리큘럼의 유아교육을 행하는 형태이다. 이 형태는 유아교육의 기회균등이 보장된다는 이점은 있지만, 장시간의 보육시간에 유치원과 동일한 양·질의 내용과 방법을 행하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또한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보육교사의 재교육의 문제, 유치원과 보육시설 중 한쪽의 자격만을 가진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의 처우상의 영향 등도 큰 문제로 남는다.

네번째는 '유치원의 보육시설기능 포함형'이다. 이것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양쪽을 모두 존속시키는 것은 세번째의 형태와 동일하지만, 유치원에 등원하고 있는 요보호아동에 대하여 유치원이 끝난 후에도 보육시설과 동일한 보육을 행하는 형태이다. 이 형태에서도 동일하게 유아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지지만, 동일한 시설의 유아가 사정에 따라서 다른 처우를 받는 것에 대한 영향, 더욱이 교육기관에서 요보호아동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자격요건, 유치원교사의 재교육 등이 문제가 된다.

다섯번째는 '연령구분형'이다. 이것은 4.5세아는 유치원, 4세 미만아는 보육시설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대상아동을 연령으로 구분하는 형태이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대상연령을 연령으로 구분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명확한 구분의 기준이 되겠지만 명확한 이론적 근거가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연령상의 이원화라고도 할 수 있다. 더욱이 혼합연령보육의 이점을 실시할 수 없다는 점과 요보호아동의 유치원보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소득계층의 유치원 등원아에 대한 경비의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구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유보일원화의 내용상의 논의점으로는 다음의 네가지가 주요하게 논하여지고 있다(曾和信一, 1984: 20).

첫번째는 법제상의 일원화에 대한 논의이다. 이것은 학교교육법에 기반한 문부성 소관의 교육 시설인 유치원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후생성 소관의 아동복지시설인 보육시설과의 법제상의 일원화의 문제로서 논하여지고 있다.

두번째는 내용상의 일원화에 대한 논의이다. 이것은 용어와 개념상의 문제로서 "유아보육"인가 "유아교육"인가라는 용어상의 문제로서, 이 문제는 보육과 교육의 원리론 또는 커리큘럼론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세번째는 보육교사양성제도상의 일원화에 대한 논의이다. 일본에서는 유치원교사의 양성은 대학, 단기대학(2년제), 그외의 양성소에 의해 소정의 필요한 단위를 취득하게 되면 1급 또는 2급별로 그 면허장을 받게 된다. 이에 비해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는 단기대학이나 보육전문학교 등의 양성소에서 소정의 단위를 취득하여 그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과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단기대학이나 양성소에서는 동시에 양성할 수 있는 기관으로 되어있다.

유보일원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자격의 취득문제와 국가시험제도,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의 양성소의 커리큘럼의 개정 등의 긴급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각각의 전문성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남는다.

네번째는 보육재정의 일원화에 대한 논의이다. 보육시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정하는 아동복지 시설이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경비는 복지경비이지 교육비가 아니다. 그러므로 유치원의 교육비와 보육시설의 복지비의 일원화문제를 위해서는 보육재정의 일원화 이전에 보육내용의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유보일원화를 위해서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재정간의 불균형 및 모순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공시립간의 경비격차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더구나 유치원·보육시설의 각각의 시설 내에서도 설립자의 상이함에 따른 내부모순이 존재하므로 일원화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불균형과 내부모순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IV. 유보일원화논쟁에 대한 검토 및 과제

지금까지의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유보일원화에 대한 찬성의 입장과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반대의 입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보일원화를 찬성하는 유치원의 주장은 현존하는 시설을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보의 상호보완을 추진하고, 연령상으로 만3세 이상 아동을 유치원에서 보육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보일원화의 재정방식으로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써, 그 부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호자에 대한 직접조성방식에 의한 자유선택제를 도입하여 보육시설조치비를 없애며, 장시간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비조성을 한다는 것이다.

유보일원화를 반대하는 보육소의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유보일원화에는 찬성하지만, 유보일원화란 "아동에 있어서 바람직한 보육이란 무엇인가", "양호와 교육을 일체로 한 보육을 영아부터 취학전의 유아까지 일관되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육제도를 어떻게 정비하여야 하는가", "어린이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원점에서 논의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한다(小宮靜枝, 1984: 73).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여당과 유치원관계자가 구상하여 온 일원화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의 생활실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보육시설을 유치원화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일원화가 행하여지면 아동복지는 후퇴되어지고 여성의 노동권은 위협을 받게 된다고(堀正嗣, 1985: 71)하면서, 아동복지시설로서의 독자성을 강조한다. 즉 이들은 보육시설에 있어서의 보육은 자본주의사회의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어 온 특정아동의 전체적인 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유치원에 있어서의 보육은 제도상 모든 어린이의 부분적 생활(교육적 측면)을 대상으로 한다고(竹原健二, 1989: 36)하며, 유치원의 취원시기가 만3세, 더욱이 보육시간이 원칙상 4시간으로 정착하여 온 것은 "항상 집에 있는 전업주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池田祥子, 1995: 73)이라며, 유치원의 기능과의 차이점을 강조한다. 재정적으로는 유치원측이 주장하는 직접조성방식에 따르게 되면 현재의 보육재정의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일본의 유보일원화의 논쟁의 내용은 어린이의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논의된 것이라기 보다는 이익집단의 이해와 관련된 논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유보일원화에 대한 표면적 주장은 유치원의 교육적 기능과 보육시설의 복지적 기능의 관계를 어떻게 고찰하여야 하는가가 주요한 논점의 하나가 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동수의 감소에 따른 정원감소의 현저화에 따라 아동들을 좀 더 각자의 시설에 등원시키게 하기 위한 아동쟁취작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입장에서는 행정관한영역의 확보와 1970년도에 진행된 행정개혁의 움직임 속에서 정부예산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논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의 유보일원화논쟁은 집단보육에 대한 어린이의 권리와 보호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방향성으로의 모색과는 달리 보육예산의 삭감과 유치원의 경영위기와 이에 보육시설의 이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립과 관련되어 진행되어온 경향이 주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당면목표로써 유보일원화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유보일원화가 논의될 경우에는 서로의 이해관계에서만 대립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집단보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즉 어린이에게 있어서 생활과 성장, 발달을 보장받는 것은 어린이의 본래적 권리이므로 모든 어린이는 동등하게 보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어린이의 생활, 발달의 영역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집단보육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가정보육과 집단보육이란 지역에 있어서의 사회와 자연환경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의 보육을 생각할 경우 가정보육, 집단보육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 사회보육을 전체적으로 서로 관련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점에서 어린이들의 집단보육을 보다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관점에서 유보일원화가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어린이의 권리의 관점에서 만일 유보일원화의 논의가 이루어질 때에는 구체적인 일원화의 형태는 물론, 실시된 경우에 현재의 이원화제도에 비하여 어린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 나아가 오늘날에는 핵가족화에 의해 고립된 가정과 아동의 존재 등 가정의 양육력이 현저하게 약해지고 있으므로, 국가책임에 따른 자녀양육의 지원에 따른 어린이의 발달을 보장하는 부분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田村和之「保育所と幼稚園」,『これからの教育』法學シリーズ 増刊 綜合特集28, 日本評論社, 1985年 2月.
指田榮一「幼保一元化」, 明治圖書出版, 1972年.
堀正嗣「幼児期における養護と教育」,『人間科學』第24號, 關西大學大學院, 1985年 3月.
小宮靜枝「幼保一元化」,『保育研究』通卷19號, 建帛社, 1985年 2月.
曾和信一「教育福祉論ノート」,『人間科學』第22號, 關西大學大學院, 1984年 3月.
池田祥子「『保育』理念の行方」,『東京文化短期大學紀要』第6號, 1985年.
永野治男「幼保一元化問題」,『近代化研究』46號, 大阪府社會福祉協議會, 1984年 3月.
松川和照「財政面からの 幼保問題」,『保育の友』, 全國社會福祉協議會, 1983年 10月.
石毛鏡子「幼保一元化のうごきを見る」,『自治体の保育運動』vol. 18, 全日本自治團體勞動組合, 1984年.
「緊迫化する保育所問題」,『保育情報』, 全國保育團體連絡會, 1984年 4月.
「保育一元化について」保育勞動運動, 保育勞動運動研究會, 1986年 1月.
國際子ども 研究所「新・保育所ガイドブック」, 中央法規, 1995年 12月.
持井和江「保育原理」, MINERVA書房, 1991年 4月.
「保育情報」, 全國保育團體連絡會, 1996年 1月.
「保育情報」, 全國保育團體連絡會, 1997年 3月.
竹原健二「保育所における 兒童福祉的保育についての一考察」,『大憲論叢』第28卷 第1號, 西日本短期大學法學會, 1989年.
池田祥子「『保育』という言葉の歴史性」,『東京文化短期大學紀要』第13號, 1995年.

요 약

일본에서의 유치원과 보육시설간의 일원화논쟁은 1926년 『유치원령』의 조문에서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역사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유보일원화란 모든 유아의 보육을 받을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간에 보여지는 여러가지 격차를 시정하고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유보일원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유보이원화 체제하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각각의 주어진 목적, 성격에 의해 제약을 받고 운영되므로, 유치원과 보육시설간의 격차를 초래하여 아동의 보육에 차별과 혼란이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의 보육을 받을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보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실적으로 유보이원화체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음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일본의 유보일원화논쟁의 역사적 경과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본고의 결론에 따르면 일본의 유보일원화의 논쟁의 내용은 어린이의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온 것이 아니라 이익집단의 이해와 관련된 논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유치원의 교육적 기능과 보육시설의 복지적 기능의 관계가 주요한 논점이 되어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동수의 감소에 따른 정원감소의 현저화에 따라 아동들을 좀 더 각자의 시설에 동원시키기 위한 아동정책작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입장에서는 행정권한 영역의 확보와 1970년대에 진행된 행정개혁의 움직임 속에서 정부예산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논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여성정책

2002년까지 실행되어야 할 여성정책 30대 주요과제

· 한국여성단체연합 ·

본회가 소속되어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김영삼정부 여성정책을 평가하면서 차기 정부가 2002년까지 해야 할 주요여성정책 과제를 선정하였다. 김영삼부가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못한 과제와 21C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목표로 '여성정책 30대 주요과제'를 정리한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여성정책 담당기구

(1) 여성부신설 및 시·군·구에 여성국(부) 신설

- 여성정책 협조부서로 지정된 40개 관련 부처내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여성 담당관 설치
- 각 분야의 여성통계를 개발하고 여성의 현실과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배포
- 여성관련 예산 대폭 확충
97년 67조5천억 중 여성관련 주요예산 약450억(복지부 부녀복지예산 160억, 노동부 근로여성 국 100억, 정부장관(제2) 190억, 기타)을 대비해보면 0.07%에 불과

(2) 국회 여성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승격

2. 여성의 정치 및 정책결정 참여 확대

(3) 정당에서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 각급 선거에서 여성을 30% 비율로 공천
- 각급 선거의 비례대표에서 여성을 일정비율 이상 공천 : 국회30%, 광역의회 50%
- 당고위직 임명시 : 30%
- 선거공명제 확대 및 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4) 고위임명직 공무원의 여성임명 확대

- 국무위원 중 30% 여성할당
- 광역자치단체장 부단체장 임명시 정무직 1인 여성에게 할애

(5) 정부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 2000년까지 30% 할당 제도화

- 매년 참여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보고
- 여성정책관련 주요위원회(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성차별개선위원회 등) 50% 여성할당
- 성인직적 관점이 시급히 필요한 방송위원회 및 각종 신설위원회 30% 여성 할당

3. 인권문제

(6)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및 시행령 제정, 가정폭력방지 예방교육, 상담소 및 보호시설 제정 지원

(7) 성폭력특별법 개정(친고죄 전면폐지, 고소시한 연장, 여성전담 경찰관제도 확대) 및 미디어의 성폭력 유발요인 규제 강화

(8) 매매음방지법 제정 및 향락업소 규제강화(중간 착취구조 단속 강화)

4. 경제세력화 분야(경제적 역량 강화)

(9) 채용·배치·직업훈련에서 일정비율 이상 여성에게 할당

- 배치 및 직업훈련 30% 할당(공공직업훈련기간에서 여학생에게 일정비율 입학할당제 도입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모집시 여학생에게 일정비율 할당제 도입)
- 고용할당제 30% (공기업 당연적용, 사기업은 권장하되 세제감면 혜택 및 금융지원)

(10) 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 일정비율 할당

- 공무원 상위직 특채시 일정비율 여성할당
- 교수채용시 목표설정 여교수 우선채용
- 5급 이상 승진시 여성공무원 20% 할당
- 학교행정직 및 교육전문직 승진시 20% 여성할당
-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주무부처에 여성공무원 배치

(11)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사생활의 양립지원

- 육아휴직의 유급화

- 직장보육시설 확대

- 가족간호휴가제도 도입

(12) 고용안정대책

- 파견근로법 제정 반대 및 공공직업소개소 확대를 통한 노동력 수급의 활성화
- ILO 시간제노동에 대한 협약 비준
- 가내노동협약과 권고에 따른 가내노동정책 수립 및 보호법 제정
- 여성노동자 산전후 휴가 90일 확대 및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가내노동자의 출산수당을 의료보험에서 지급
-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노동관계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재해보상법 전면 적용

5. 가족 분야

(13) 가족법 및 국적법 개정

- 호주제 폐지, 동성동본불혼제 폐지, 국적법을 부계중심에서 부모계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

(14) 가사노동 평가기준 개정

- 가사노동 평가기준을 전 취업여성의 평균임금 연령, 학력별 평균임금 남편소득의 1/2 중 하나를 적용하고 법정 근로년한을 65세로 확장

(15) 여성의 국민연금권 확대

- 여성의 독자적인 연금 수급을 확보하기 위해 1인 1연금제를 도입
- 가입자의 연금소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하여 이혼시 피부양배우자에게 연금분할수급권 인정
- 전업주부에 대하여 임의가입이 용이하도록 현행보험료를 6%에서 3%로 하향조정

(16) 보육시설 위주의 지원에서 보육대상 아동의 경제적 수준을 등급화하여 형평성있게 아동에게 지원

(17) 방과 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 학교·사회복지관 등의 시설을 개방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양질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

(18) 학교급식을 중고등학교까지 전면개방하고 우선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할 것

(19)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지원

- 편부모가정의 경제적 지원 현실화 및 평등화, 정서적 지원

- 이혼 등 가족 변동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 가출청소년·소녀를 위한 전문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무료직업훈련원, 쉼터 설치
- 모자가정의 지원역수 현실화 및 모자보호시설 입소 자격 완화

6. 보건 분야

(20)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 여성노동자, 여성농민, 영세자영업 여성을 비롯한 모든 여성의 분만시 본인 부담금 폐지
- 모든 가임여성의 산전후 각종 질병 및 건강관리를 위한 검진비용을 의료보험에서 급여화할 것(초음파 검사 포함)
- 여성관련암(자궁암, 유방암 등) 진찰시 의료보험 급여화할 것

7. 미디어 내 성차별 개선

(21) 미디어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 매체 프로그램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심의규정 마련
- 여성의 미디어 활동 지원, 미디어종사자에게 성인지교육 실시
- 대중매체조직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지침서 도입
- 대중매체 의사결정직 승진시 20% 여성할당

8. 빈곤 분야

(22) 여성농민을 농업생산인력화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복지 확충

- 여성농민을 생산경영인으로 인정하기 위한 정책입안과 입법화
- 농협이사에 여성농민 30% 할당
- 여성농민의 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합한 종합복지센터 건립
- 농어민연금에 여성농민 독자적인 수급권 인정
- 여성농민정책 전담부처 선정 및 담당 전문인력 배치

(23) 빈곤한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지원과 보호

-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금융적 지원과 보호정책
- 여성창업자금 지원

9. 교육 분야

(24) 영유아교육에서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입시위주 교육제도 개혁 : 공교육과 사교육제도의 일원화

(25) 인성교육으로의 일환으로써 여성학과 성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채택, 교사들의 양성평등적인 재교육과 교직과목 이수과정에서의 여성학 필수과목화

(26) 여성의 정보창출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10. 환경 분야

(27) 환경과괴로 인한 여성들의 건강피해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환경 유해 물질에 의한 여성들의 건강피해를 규명할 수 있는 방법과 보상체계 마련

(28) 녹색생산과 소비를 위한 모니터나 홍보 등 여성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29) 환경정책 수립과 계획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11. 통일정책

(30) 국방비 감축 및 평화체제로의 전환, 평화교육프로그램 개발, 여성적 입장이 고려되는 구체적인 통일방안 수립

기획특집

지난 날들, 지금 그리고 앞으로를 생각하며

위양자 · 본화 부회장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오는 7월26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보육교사회로 새롭게 탄생한다. 대부분의 회원과 선배 그리고 지탁연을 사랑했던 모든 이들은 서운함을 감추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탁연의 12년 정신을 계승하여 '육아의 사회화' 운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었던 지탁연의 12년을 되돌아보고 희망찬 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1995년 11월25일.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0주년 기념 잔치를 가졌다. 그리고 2년여 세월이 흘렀다. 사람의 일생으로 보면 12살 남짓 나이를 먹어 사춘기를 겪으며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나이가 되었고, 또 달리 생각해본다면 인생에 있어서 청년기의 가장 중요한 통과의례인 혼례를 치르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이 집 저 집 떠돌다 좀더 나은 전세집을 구하고 그러다 작지만 내집을 마련하고, 이제부터는 내 집에서 발뽀하며 잠자며 무언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다.



돌이켜보건데 참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80년대 초, 들끓처럼 알아서 싸울 틱우고 뿌리를 내려가며 개별적으로 아이들을 보듬어 안던 사람들이 86년 2월, 지역사회아동교사회 창립으로 마음을 모으기 시작한 이래, 지역별 연대를 강화하고 그 기틀을 다져 87년 6월 지금의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로 거듭태어났다. 남영동, 신도림동에서 어려운 살림 끝에 지금의 여성평화의 집에 작으나마 내 집까지 마련하게 되었다. 95년엔, 10살 잔치를 치렀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우리네방앗간 사업을 어렵사리 운영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한국 최초로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도 설립하였다.



"한번 지탁연은 영원한 지탁연"이라는 말이 있다. 이런 말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아마 97년 7월 이 시점에도 지탁연을 모르는 보육교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감히 이 말을 부정하는 어떤 토도 달고 싶지 않다. 왜 그럴까? 지탁연에 몸담아 함께 한 세월 속에서 우리가 겪어내고 이루어 낸 그 '무엇'인가가 우리들을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엮어주기 때문일 것이다.



70~80년대 우리사회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쳤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고향을 등진 채 서울로, 도시로, 공장으로 떠나와 정착하며 만들어진 도시빈민지역, 이른바 판자촌에서 우리는 일하는 어머니들과 아이들의 동반자로서 부족하나마 비영리민간탁아소들을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였다.

89년 9월 정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여 탁아규정에 대한 법적 장치를 부활하였지만 극빈층의 자녀정도만을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 탁아소 몇개를 세우기 위한 법적 근거에 지나지 않았다. 현실적인 보육수요와는 거리가 먼 강제규정을 두어 오히려 기존에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해 오던 민간탁아소들마저 폐쇄·불법화하는 이 개정안의 시행을 거부하며 우리는 '탁아문제 공동 대책위원회', '탁아문제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국회 청원, 공청회, 거리서명 등의 활동을 벌이는 한편 독립입법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마침내 입법의 지조차 없던 민자담으로 하여금 보육에 관한 독립법안을 상정하게 하였고 이로써 비록 졸속적인 내용의 법안이나마 국회에서 통과되어 '영유아보육법'이 탄생함으로써 보육문제가 사회, 제도적인 문제로 자리잡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혜영·용철 자매와 세쌍둥이의 죽음을 그들 부모와 함께 한 우리들은 그 부모가 아이들을 가슴에 묻었듯이, 그들의 영혼을 '영유아보육법'을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지킴이로 기억해 왔다.

우리는 법 제정 이후에도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체 보육수요의 60% 정도를 책임지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을 책정·지원하도록 요구하고 보육비용을 '공동부담(국가, 지방정부, 기업, 부모)원칙'으로 바꾸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95년 10주년 기념잔치를 계기로 우리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앞날을 내다보면서 한국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함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실천이 시급함을 절감하며 그후 2년여의 기간동안 많은 토론과 새로운 시도들을 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한 나라의 보육정책과 보육제도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그 나라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교육하는 '보육교사'들의 얼굴이 동전의 양면처럼 그려지게 된다. 어느 나라 '보육'이건 보육받는 아이들의 만족도는 '보육교사들의 만족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어쩌면 사람의 손등과 손바닥처럼 항상 한몸인 '보육'에 있어서 아이들과 보육교사,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과 '어른'으로 '보살핌'을 주고 받는 세상의 축소판이기도 한 이 어울림을, 올바르게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른인 보육교사의 노력이 결정적이고 그 실천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나라 '보육의 질'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첫아이를 낳고 채 한달이 되기 전에 '달동네'라고 부르는 곳의 '탁아소'를 알게 되었고, 한달 남짓 고민을 하다 아이를 들쳐 업고 그곳으로 들어가 살며 인연을 맺기 시작하였으니 지탁연과의 인연은 우리 첫아이의 나이와 거의 같다고 해도 될 것이다. 당시 3.4kg이던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으니 그동안 무지했던 '탁아'에 대한 나름의 생각도 깊어졌고, 무엇보다 '탁아'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다고나 할까. 80년대 초부터 헌신적으로 노력한 선배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이 이뤄놓은 발판 위에서 조금은 편하게 일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지탁연"에 대한 애정만큼은 시간이 짧다고 해서 그분들께 뒤지지는 않을 자신이 있다. 왜냐면 지탁연은 내가 지난 10여년간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지탱해준 힘이었

고 나의 2세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터전이었기 때문이다.

요즘도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보육교사'라고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는다. 몇 달전만 해도 '0000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000입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0000어린이집이 없어졌지만 그래서 오히려 '보육교사'라고 말하기가 즐거워졌다. 그리고 아마도 지탁연에 대한 애정이 기억되는 한, 한국의 보육 현장 어디에선가 내가 있을 곳을 찾을 것이고 '보육교사'로서 함께 변화해 나갈 것이다.



"한번 지탁연은 영원한 지탁연". 이 말은 아마 한국보육운동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보육교사로서의 긍지와 자신감으로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아쉬움! 두려움?! 이제는 떨쳐버려야 할 것은 훌러나게 막지 말고 우리앞에 놓여진 현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일당 백의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도약의 첫발을 설레임으로 맞자!



통신이야기

썩썩한 어린이집 용감한 선생님의 PC통신 입문기
편지보내기과 편지받기

이감선주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

장마가 시작되었나 봐요. 이런 날은 옛친구에게 편지라도 한장 띄우고 싶어지지요. 요즘은 전 화나 삐삐가 일반화 되어있어서 그런지 예전처럼 편지를 쓸 기회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고시절 친구에게 쓰던 분홍색 편지지는 아니지만... 우표를 붙일 필요도 없고, 우체국에 갈 필요가 없는 편지쓰기를 알려드릴게요.

컵을 켜시고 천리안에 접속하시구요. 천리안 어디에서나 go mail을 치면 다음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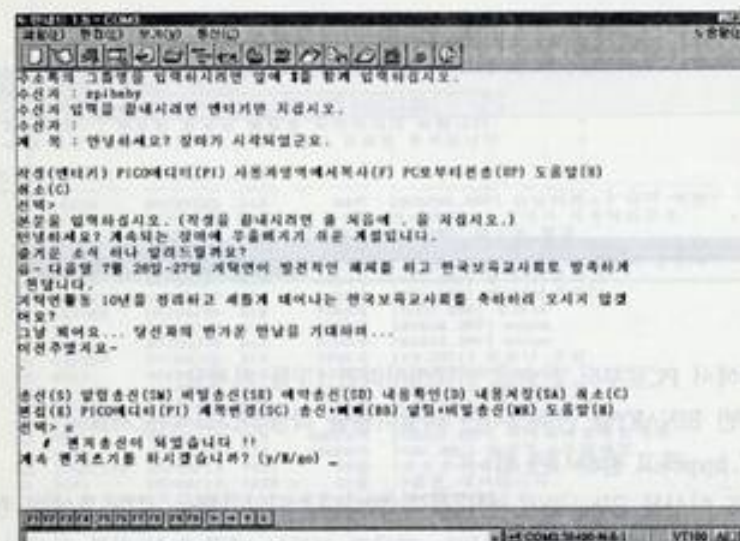
편지쓰기 2번을 선택하시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수신자에 편지받는 사람의 ID를 쓰세요. 같은 편지를 여러 사람에게 보내려면 수신자란에 계속 ID를 쓰시면 되지요. 아이디 쓰기가 끝났으면 엔터를 치세요.

제목을 쓰는 난이 나오지요? 제목을 쓰고 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작성(엔터키) PICO에디터(P) 사용자영역에서복사(F) PC로부터전송(UP) 도움말(H) 취소(C)
(선택)

온라인 상태에서 쓰고자 하면 엔터키를, 한글에서 작성해 놓은 편지를 보내려면 up를 칩니다.
온라인 상태에서 쓴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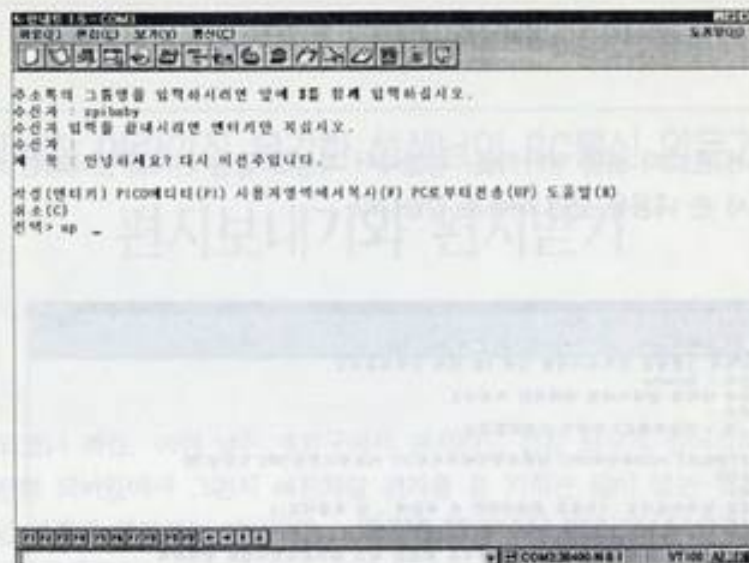
편지의 내용을 다 쓰셨으면 맨처음에 .를 치시고 엔터를 하면 위와 같은 안내가 나오지요?

송신(S)	일반적인 편지를 보낼 때 사용하는 방법
알림송신(SM)	지금 상대방이 접속해 있다면 편지가 온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방법
비밀송신(SE)	비밀번호를 적어서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예약송신(SD)	지정된 날짜에 예약 편지를 보낼 때 사용하는 명령어
내용확인(D)	작성한 내용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내용저장(SA)	작성된 편지를 사용자영역으로 복사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취소(C)	작성한 편지를 취소할 때 사용하는 방법
편집(E)	작성한 편지를 편집할 때 사용하는 방법
제목변경(SC)	작성한 편지의 제목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방법
송신+빠빠(BB)	편지를 보내고 상대방에게 빠빠를 칠 수 있는 방법

송신(S)을 선택하시면 "편지송신이 되었습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긴 내용의 편지를 온라인 상태에서 직접 작성해야 하는, 돈이 드는 방법이
지요. 그보다 한글에서 이미 작성한 내용을 보낼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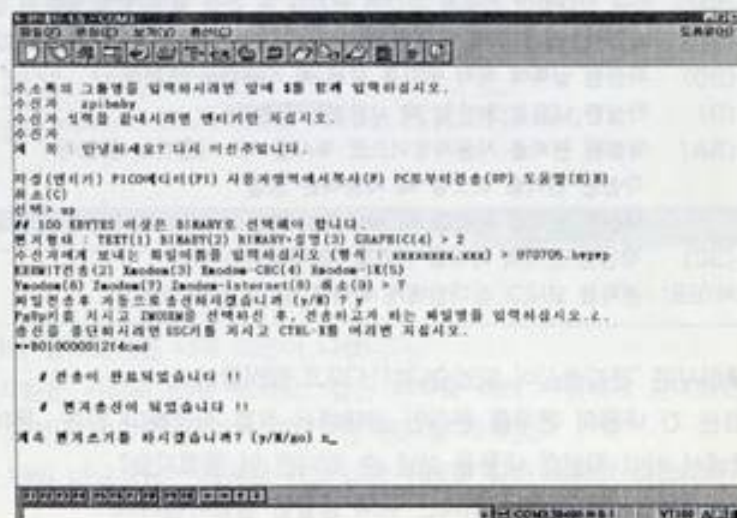
수신자 아이디와 제목을 입력하는 것까지는 위와 동일한 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PC로부터 전송을 선택하려면 UP를 치세요.
편지형태에서 2번 BINARY를 선택하시면 파일이름을 작성하라고 나오지요?
파일이름은 *.hwp라고 정하시면 됩니다.

100 KBYTES 이상은 BINARY로 선택해야 합니다. 파일이름을 정한 후에는 전송방법을 선택하는데 보통은 Zmodem(7)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PgUp키를 치시고 ZMODEM을 선택하신 후, 전송하고자 하는 파일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파일이 B드라이브에 있는 디스켓에 있다면 B:\970705.HWP라고 부르시면 전송이 됩니다.

물론 다 끝나면 전송이 완료되었음을 알려주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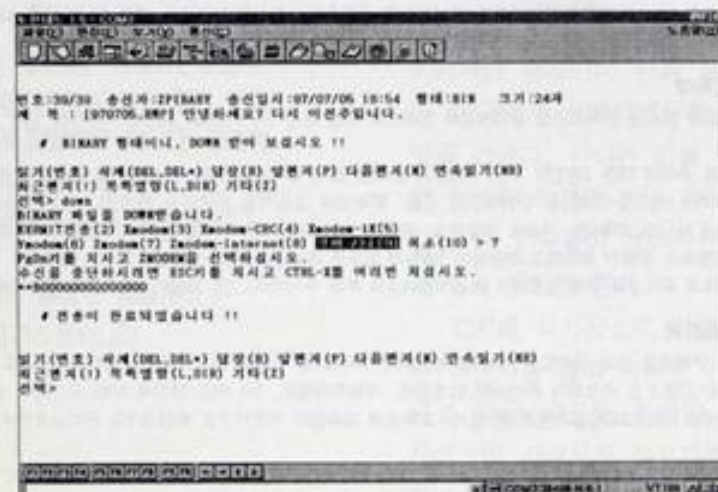
이제는 지금까지 보낸 편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go mail 하시고 전자우편 화면에서 편지읽기를 선택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왔던 편지의 제목들이 주루룩 올라옵니다. TEXT 형태의 편지는 그냥 번호만 누르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BIN형태의 편지를 보시려면 DOWN을 받아야 합니다. BIN형태의 39번 편지를 읽어볼까요?

송신날짜로부터 20일(BINARY는 10일)이 경과된 편지는 자동으로 삭제되오니, 중요한 편지는 별도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BIN 형태는 설명문(TEXT)과 BINARY가 포함된 편지입니다.

번호	송신자	송신날짜	형태	크기	제목
30	LSJ20	97/07/05	BIN	24주	[970705.HWP] 안녕하세요? 다시 예전
31	LSJ20	97/07/05	TEXT	6주	안녕하세요? 잘가기 시작했군요.
32	LSJ20	97/07/05	BIN	21105주	[970705.HWP] 내내의 편지
33	LSJ20	97/07/05	TEXT	31주	[자정점] [970705.HWP] 전과(복수) 받은 편지
34	LSJ20	97/07/05	BIN	9747주	[970705.HWP] 전과(복수) 받은 편지
35	LSJ20	97/07/05	BIN	9614주	[970705.HWP] 전과(복수) 받은 편지
36	LSJ20	97/07/05	BIN	9653주	[970705.HWP] 전과(복수) 받은 편지
37	LSJ20	97/07/05	BIN	9753주	[970705.HWP] 전과(복수) 받은 편지
38	LSJ20	97/07/05	BIN	9793주	[970705.HWP] 전과(복수) 받은 편지
39	LSJ20	97/07/05	BIN	9793주	[970705.HWP] 전과(복수) 받은 편지
40	LSJ20	97/07/05	BIN	9793주	[970705.HWP] 전과(복수) 받은 편지
41	LSJ20	97/07/05	BIN	9793주	[970705.HWP] 전과(복수) 받은 편지
42	LSJ20	97/07/05	BIN	9793주	[970705.HWP] 전과(복수) 받은 편지
43	LSJ20	97/07/05	BIN	9793주	[970705.HWP] 전과(복수) 받은 편지
44	LSJ20	97/07/05	BIN	9793주	[970705.HWP] 전과(복수) 받은 편지
45	LSJ20	97/07/05	BIN	9793주	[970705.HWP] 전과(복수) 받은 편지
46	LSJ20	97/07/05	BIN	9793주	[970705.HWP] 전과(복수) 받은 편지
47	LSJ20	97/07/05	BIN	9793주	[970705.HWP] 전과(복수) 받은 편지
48	LSJ20	97/07/05	BIN	9793주	[970705.HWP] 전과(복수) 받은 편지
49	LSJ20	97/07/05	BIN	9793주	[970705.HWP] 전과(복수) 받은 편지
50	LSJ20	97/07/05	BIN	9793주	[970705.HWP] 전과(복수) 받은 편지

31번을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DOWN을 입력하세요. Zmodem(7)을 선택 하시구요.



이제는 전송받은 편지를 읽어야겠지요?
접속을 끊으시고 한글로 들어가세요. 한글에 있는 이야기 디렉토리 안에 보면 지금 받은 파일이 들어있을거예요. 없으시다면 이야기 디렉토리 안에 DOWN 안으로 들어가보세요.

뭔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한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이제 사이버공화국 시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어 느덧 용감한 선생님이 잘난 척 할 수 있는 게 바닥이 나버렸네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을 저에게 알려주시지 않겠어요? 뭔가 안풀리는 일이 있다면 저에게 편지하세요... LSJ29 ...

선택> x
접속을 종료하시겠습니까(Y/n)? y

「4차 교육개혁안 부문별 주요내용」

유아교육 개혁방안의 골자는 지금까지 거의 방치되다시피한 유아교육을 공교육 체계에 편입시키자는 것이다. 교육투자효율성이 가장 큰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의 우선 순위에 늘 밀려왔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분야중 선진국과의 격차가 가장 크다는 인식도 뒷받침했다.

유아학교제

현재 3세 이상 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편한다.

유치원 이외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유아학교 전환과 더불어 오전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을 종일반까지 운영하도록 유도한다. 유아학교 교원의 자질 향상방안을 마련하고 장학제를 확충한다.

유아교육 지원확대

교육예산중 유아교육 예산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해 2000년이 되면 연간 3% 이상을, 2005년 이후에는 연간 5% 이상을 투입한다.

초등학교 취학직전 유아에 대한 1년간의 무상 유아교육 원칙을 법에 명시한다. 무상 유아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지원제도(바우처시스템)를 단계적으로 도입, 학부모의 교육기관 선택권을 제공한다. 저소득층지원제도 개정이 교육비를 전프로 받아 자신이 교육받는 기관에 제출하고, 전표를 받은 교육기관이 이를 정부에 제출해 교육비를 지급받는 제도가 된다. 2000년까지 초등학교 취학전 유아학교 취원율이 100%가 되도록 추진한다.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유아교육 수혜 저조지역 등을 '유아교육 투자 우선지역'으로 지정,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한다.

유아교육개혁추진위

유아교육 개혁의 구체화를 위해 민관합동 '유아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임시적으로 운영한다. 위원회는 교계위원과 특별위원의 형태로 10-12명으로 구성되며 유아관련 법제정비, 재정투자계획, 3세 미만 영아에 대한 국가대책 등을 마련한다. 관여 및 기초자치단체에 '유아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 교육감과 교육장의 자문기구로 해당지역의 유아교육정책을 조정, 심의한다.

한국일보 1997년 6월 2일자.

일·본·연·수·일·지

일본 장해(障害)보육 의 감동을 회원들과 함께...

지난 5월 일본 오사카로 2개월간의
연수를 떠난

박찬주·지연·이현경·박희명선생님이
그곳에서 장해인(障害人)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본회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4명 모두가 글을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일본에서는 '장애'를 '障害(장해)'라고
사용하여 장해로 통일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안나(あんな)의 소풍

박희명·광주 도담도담어린이집

아침 9시. 파가운 햇살이 감자 캐기에는
더운 감이 없지 않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그
저 밝다. 희망의 문 보육원 스미레그룹의 오
까자끼선생님은 유난히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준비를 하신다. 오늘은 제법 먼 거리의 소풍
이기에 아이들의 준비물을 챙기는 것도 많지
만 무엇보다도 5살박이 안나(생후 48개월,
뇌성마비장해아)의 집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안나의 발이 될 유모차며, 앉거나 누울
때 사용하는 발침깔개, 식사때 필요한 턱받
이며 수건들 그리고 오늘 먹어야 될 약이 들
어 있는 소형 아이스박스, 도시락, 체온계
등이 들어있는 배낭까지...

9시30분에 드디어 출발! 커다란 관광버스
를 타고 1시간쯤 가니 감자밭을 비롯해 온갖
곡류·채소·과일·꽃·나무들이 가꾸어져
있는 오사카시립농원에 도착했다. 다페와리
반 4·5·6세 어린이 60여명은 감자 캐는 재
미, 벌레 찾는 재미에 더위를 잊고, 안나도
유모차에 누워 잘 가누어지지 않는 고개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산과 들을 둘러본다. 그
런 안나에게 오까자끼선생님은 연신 웃으며
말을 건넨다. 안나는 비록 말은 못해도 안나
의 눈빛은 자연의 맑은 공기를 아는 듯하고,
같은 반 친구들이 보여주는 흙 묻은 감자를
보며 씩 웃기도 한다.

12시에 식사장소로 이동, 오까자끼선생님
은 유모차를 끌며 어깨엔 안나의 짐가방들을
메고 땀을 비오듯 흘리지만 그래도 싱글벙글
웃어가며 산책하듯 유모차를 운전(?)하신다.
무거운 짐들이지만 그 가방들은 안나와 함께

있는 오까자끼선생님의 어깨에 항상 들려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안나의 상태를 도와주거나 점검해줄 내용물들이기 때문이다. 나무그늘에 받침갈개를 펴고 안나를 눕힌 후 기저귀를 갈아준다. 그리고는 장해아쌍둥이를 낳으신, 늘 밝은 표정의 안나 엄마가 정성스레 싸주신 도시락을 안나는 누워서 받아 먹는다(평상시 보육소에서는 장해아용 보조의자에 앉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며 혼자 먹는다). 오까자끼선생님은 안나에게 골고루 먹이려 하지만 고기류를 좋아하는 안나는 선생님이 주시는 야채를 거부하기도 하면서도 대부분 받아먹는다. 안나의 식사시간은 1시간 10분 정도이고, 그 시간에도 선생님과 안나의 교감은 끊어지지 않는다.

식사 후, 안나는 졸린 눈을 껌벅이며 억지로 약을 먹고, 선생님은 체온계로 안나의 몸상태를 체크하신다. 같은반 친구들은 수시로 안나에게 와서 말을 걸기도 하고 새로 잡은 벌레도 자랑한다. 오까자끼선생님과 안나의 친구들은 눈 껌벅임과 무거운 고개짓이 전부인 안나의 표현만으로도 너무나 즐겁게 서로 어울려 오후시간을 보낸다.

오후 3시 오까자끼 선생님은 버스길에 돌아온 안나를 안고 보육소에 돌아오고, 안나는 기다리고 계셨던 엄마 품에 안긴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또래와는 많이 다른 안나. 장해어린이라는 차이를 가졌지만, 오늘 안나는 선생님과 친구들이라는 공동체의 힘으로 동등하게 자연을 느끼며 차이를 뛰어넘었다. 그리고 그러한 이상적인 모습과 힘있는 고민거리들을 우리 연수팀에게 가슴 깊이 남겨주었다.

‘고모도(아이들)의 家’(보육소 이름)에 갔던 일

이현경 · 남부 새터어린이집

나의 성화 연수예정표에는 ‘5.27 고도모의 집(발달장애아 동원시설)과의 직원교류’하고 적혀있었다. 직원교류라는 말이 내게는 회의나 토론으로 생각되어 장해아에 대한 토론이라 생각하고 우리 4명 모두 참석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고도모의 집 교사와 성화교사가 함께 모여 식사하고 통성명하는 자리였다.

성화보육소와 고도모의 집은 같은 이루노구에 있는데 10년간의 왕래가 있었다고 한다. 이번의 만남도 6월부터 시작되는 아이들의 교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고도모의 집원장선생님은 그날 우리의 많은 질문에 ‘장해를 개성으로 보고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게 본다.’는 말을 하면서 방문을 허락했다.

6월5일 목요일은 연립별반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성화는 다짜와리(3.4.5세 혼합연립반)이지만 1주일에 한번 요짜와리(연립별반)로 모인다. 10시가 넘어 고도모의 집에서 큰 아이들 6명이 와서 햇님반(5세아)에 들어갔다. 함께 인사를 하고 밖에 나와 전체아이들과 섞여서 놀고 다시 햇님반 아이들과 운동장에 남아서 피구를 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아이들이 장해가 없게 여겨졌는데 나중에 성화원장선생님께 여쭙보니 말을 해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다. 그 아이들은 놀이터에 온 것 마냥 같이 온교사와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놀다가 점심을 먹고 돌아갔다.

6월10일 목요일에는 성화 햇님반 아이들 20명이 고도모의 집에 갔다. 걸어서 20분쯤 되는 곳이라 큰반인 햇님반만 가는데 날씨도 덥지만, 횡단보도나 수시로 지나가는 자전거, 자동차에 교사들은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나는 제일 뒤에서 다리가 불편한 계깡을 유모차에 태우고 갔다. 10시반쯤 도착을 해서 아이들은 들어가면서 인사를 하더니 제각기 관심있는 곳으로 흩어졌다. 우리가 들어갔을때 선생님 한분이 기타를 치고 아이들은 마라카스나 케스터네츠를 들고 노래를 하고 있었다.

이 보육소는 다른 보육소와는 달리 분반 없이 전체50명 아이들이 교사 12명과 넓은 공간에서 같이 지낸다. 한쪽에는 다다미가 있어 졸린 아이들을 재우고-따로 낮잠시간은 없다. 넓은 공간은 양쪽으로 화장실이 있고 덤블링도 실내에 있다. 커다란 스폰지가 깔려있는 곳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되어 있고, 만들기를 할 수 있는 곳, 책을 볼 수 있는 곳,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 수 있게 나무로 낮은 담을 만든 곳도 있다. 한쪽 벽 전체는 유리창인데 담벼락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천장에도 채광을 위해서인지 끝에 양쪽이 유리로 되어있었다.

잠시후 용관동화를 한다고 중앙에 모두 모여 앉았는데 교사도 아이들도 자기가 앉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앉았다. 고도모의 집 아이들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인지 자기 손에 끼워도 보고, 용관에 붙여보고, 기타 반주에 맞춰 손뼉도 쳤다. 동화가 끝난 후 볼풀에 넣은 공을 꺼내주었다. 성화의 유끼꼬는 지난번 성화에 왔고 고도모의 집 남자아이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야구를 했다. 이곳 50명의 아이들에 성화의 20명아이들이 함께 있어 무척 시끄러웠는데 아이들은 물론 나도 놀이기구 타러 온 것 마냥 신이 났다. 아이들은

정말 신나게 놀고 12시에 함께 식사를 했다. 성화아이들은 성화보육소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고 조금 더 놀다가 되돌아왔다. 이곳 아이들은 장해를 가진 아이가 30명, 비장애아가 20명이다. 비장애아 부모들은 이곳이 장해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이 좋고 지역에서 하는 활동이 좋아서 아이들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오사까지 통털어서 장해아 시설이 6군데 있지만, 그 내용이나 이념들, 교육방법에서 볼때 아마 세계에서 한 곳 밖에 없는 곳일거라고 통역자가 덧붙였다.

성화에도 6명의 장해아가 있지만, 이곳처럼 장해아 특수시설인가에 비장애아가 시에서의 보육료 보조도 없이 부모가 전부 보육료를 내면서 보내는 것만 보아도 이루노구에서 이 보육소가 차지하는 위치를 알 수 있었다. 1973년에 정박장애아 특수시설로 시작하여 81년부터 일반아동을 받아오고 있다. 이곳을 졸업해나간 비장애아 아이들의 모임도 있고, 졸업해서 성장한 장해아들이 직업을 가질수 있도록 작업소도 만들었고 그 영향으로 장해인과 함께 일하는 작업소가 몇군데 더 만들어졌다. 성화와는 모리모토원장과 이곳 원장과의 인적관계에서 아이들과의 교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교류의 의미는 아이들이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경험을 갖게 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장해를 가졌기 때문에 특수한 시설에서 훈련이나 치료를 받아서 고쳐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 오히려 아이들의 생기발랄한 생활을 끌어주기 위해 노력할 뿐이라고 한다. 결국 장해를 지녔지만, 장해는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갖는 특성일 뿐인 것이다. 이곳에서 共生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이곳이 어떠한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이들이 말하는 共生이라

는 의미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함인지, 과연 무엇을共生이라고 할 수 있는지 말이다.

장해아 부모회 교류 하이킹을 다녀와서

박찬주 · 부산 아기자립터어린이집

성애원은 올해로 장해아 공동보육 25주년을 맞이하는 곳이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더 나은 장해아 보육을 하기 위해서 연령별 보육에서 1981년부터는 혼합연령보육(다매와리 보육)으로 변경시킬 만큼 생각을 실천으로 행하는 곳이다. 그리고 장해를 가진 아이들이 자기 자력으로 자기 자신이 무엇이 하고 싶은지, 무엇이 가능한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육소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해야 하는가가 요즈음 선생님들의 고민이다.

성애원은 장해를 가진 아이들이 12명 정도 된다. 그 아이들은 비장애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아이들과 선생님의 도움으로 생활교육 등 보육소 생활을 서로 도와주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전에는 장해아 아이들을 위한 부모상담이 있고, 1년에 한번은 장해아 부모회 교류 하이킹이 실시되는데 지난 6월8일 일요일에는 선생님들과 그 가족들, 연수생 4명과 민박공원-자연문화원으로 하이킹을 갔다. 올해는 장해아 아이들의 가족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그 반면에 소

수의 아이들을 위해서 성애원선생님들이 참여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소중하게 다가왔다. 좀더 내용이 고민되어져야겠다는 바람도 가지며, 장해아와 비장애아를 구별짓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지만, 장해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들이 서로의 고민과 생각들을 말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으며, 좀더 나아가 지역속에서의 장해를 가진 사람들과의 생활적인 교류의 방법들도 모색해 나가면 아이들에게도 산 교육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실내놀이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평소 스스로 신발을 잘 신지 않은 장해아 아이가 실외놀이를 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를 위해서 모두 실외놀이를 하는 모습에서 선생님들의 고민은 앞당겨질 것이라고 믿는다.

ざんぐなべず(장구나베즈)와 ぎじむなあ(기지무나아)를 소개합니다.

지연 · 수원 웅기종기어린이집

ざんぐなべず(장구나베즈)란?

장구나베즈는 성화 보육원원장 모리모또 선생님과 교포2세인 박애자씨가 만든 모임으로 5년전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저녁에 모여 우리 종물을 배우는 모임이다. 회원은 이쿠노의 지역주민으로 교포, 일본인, 성화를 졸업한 아이들, 장해인(반 정도 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임은 한국문화를 배우기 위함도 있지만, 보통사람이 종물을 하면서 흥

겨움과 즐거움을 맛보듯이, 장해인들이 종물을 함으로써 마음 속에 쌓아둔 것을 토해내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함께 어울리고 즐거움도 괴로움도 나누고자 만들었다고 한다.

장해인을 가까이 접해보지 못한 나는 언어도 안되는데다 그들의 불편함이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박애자씨가 장구치는 법을 오래전(20년전)에 공부했으니 쓰지 않아 많이 잊어버린 우리말을 기억해가며 따뜻한 미소와 함께 가르쳐주고, 비록 또박또박 얘기할 수는 없으나 관심을 보이며 인사하고 이름을 물어 봐주는 장해인의 웃는 밝은 표정은 굳어있던 나의 마음을 풀어주었다. 그들의 종물치는 솜씨는 결코 능숙하진 못하지만 북·징·꽁과리·장구와 한몸이 되어 절로 우러나오는 흥겨움을 느낄 수 있었다. 심취하여 그들의 종물치는 소리는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보다 흥겹고 즐거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세상의 모든 장애인들 함께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텐데...

ぎじむなあ(기지무나아)란?

우리는 모리모또 선생님의 친구분이 노래를 부르는 음식점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다. 그곳의 이름은 '기지무나아'라고 하며, 겉보기엔 아주 평범한 음식점이다. 그러나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음식점은 결코 아니다.

우리 비록 의사 소통이 자유롭지 못해서 일어·영어·한국어에 바다랭귀지까지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의미는 알 수 있었다. 이 음식점의 주인 아주머니는 사람은 장해가 있건, 없건, 말·피부색·환경이 달라도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것이 재미있다고 하신다. 그래서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음식

점인데도 불구하고 장해인에게 일할 수 있게 해주었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장해인, 타민족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노래도 부르며 보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만들었다고 한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달랐다. 그러나 함께 노래부르고 춤추며 어우러지는데는 분위기에 도취되어 우리도 '서울에서 평양까지'를 멋진 율동과 함께 불러 주었다(인기가 끝내주었다). 그렇게 즐겁게 지내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하기에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모임의 끝은 봄이 불편한 장해인과 짝을 지어 함께 목욕하러 가거나, 혼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주러 간다고 한다. 그래서 집을 청겨 문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 또한 인간이 더불어 사는 것이 더없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아주 짧은 경험이었으나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편견으로 더럽혀진 내 마음을 닦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모교육

TV, Video,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정희연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소장

1. 정보화시대, 현대사회에서 아이 키우기

정말 빠르게 변한다. 모든 것이. 자고 나면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바로 어제까지 최고라고 이야기되던 것들이 어디론가로 속 들어가버린다.

비단 과학기술의 발전만이 아니다. 아이 키우는 문제만 해도 그렇다. 거의 매일 아이 키우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이 쏟아져 나온다. 지식과 기술만도 아니다. 거기에 따르는 각종 상품들이 마음 약한 부모들을 향해 돌진해온다. '나는 아니다. 소신껏 내 아이를 키우겠다.'라는 신념(?)은 그런 공세 앞에서 너무도 힘이 없다. 앞뒤집 할 것 없이 모두 그것들을 따라 움직이는 데 혼자 초연하기란 정말 어렵다. '한번만 해볼까?', '요만큼만, 한 번만 해볼까?' 하다보면 어느새 다수의 대열에 들어서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아! 정말 힘들다. 아이 키우기. 왜 그렇게 힘들게 된 것일까?

우선은 고도의 산업사회의 가정환경이 아이를 잘 키우기에는 적합치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급격한 산업화는 가족의 기능과 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핵가족, 소가족화가 바로 그것이다. 결국 아이의 양육은 고스란히 젊은 부모의 몫으로 떨어지고(특히 여성에게) 아이 키우기에 관한 노하우(?)를 전혀 갖지 못한 이 젊은 부모들은 늘 핑계가 부족한 듯하여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어디서 '무엇이 아이에게 좋은데 새로 나온거라더라'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즉시로 줄을 서게 되어 버린다(이에 비교해 예전의 사회를 떠올려 보라. 아이는 어머니의 손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었다. 대가족은 언제나 풍부한 아이 키우기의 일손을 제공해주었다. 위급한 상황이 아이에게 발생한다해도 젊은 부모들은 지금처럼 조바심 내고 떨지(?)않아도 되었다. 이미 육아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늘 가족 내에 한 둘은 있게 마련이었으니까. 부모가 아니라면 조부모, 삼촌, 고모, 손위의 형제, 하다못해 이웃에 사는 사촌들까지도. 또한 집밖에만 나가면 자연과 벗할 수 있는 무한한 공간들이 있었다. 아이들은 굳이 누구의 돌봄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가족구조 뿐만이 아니라 삶의 환경자체가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참으로 불행한 시대의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또 하나의 이유를 든다면 너무나 좁아진 사회 탓도 있을 듯하다. 각종 첨단을 달리는 매스미

디어들은 시간을 다투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시시콜콜히 거의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쏟아 붓는다. 젊은 부모들은 미처 어느 방법이 혹은 무엇이 우리 아이 키우기에 좋겠더라는 결정을 하기도 전에 갖 나온 따끈따끈한 다른 메뉴를 들이대니 그 사이에서 다시 갈등하게 되고 고민에 빠져 버리게 된다(그런데 혹자는 이런걸 정보화사회의 장점이라고 하기도 한다.). 어쨌든 힘들다. 아이 잘 키우기.

요즘 아이들의 자라는 환경과 이전의 그것을 비교해볼 때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사회를 좁혀주는 매체중 막강한 힘을 가진 TV의 출현이 아닐까 싶다. TV라는 매체가 세상에 나와 지금처럼 보편화되지는 사실 그리 오래 전 일이 아니지만 그 영향력의 심대함은 참으로 크다. 그리고, 특히 아이들에게, 그 영향력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아무리 영향력의 부정성을 이야기한다 해도 이미 TV가 세상에 나오기 전으로 돌아가 그 폐해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없는 상황임은 자명하다. 그것이 가지는 긍정성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무용론이 주장되는 것도 아니다. TV와 더불어 비디오, 최근에는 각종 전자오락, 게임팩, 컴퓨터 등 비슷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매체들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의 우리 사회를 볼 때 이러한 매체들이 현재보다 더욱 보편화될 것이라고 가정해본다면 그냥 무시해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TV나 비디오, 컴퓨터는 그냥 물건일 뿐이다. 가치중립적인 하나의 수단인 이들을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훌륭한 정보전달 수단이 될 수도 있고 해독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이러한 훈련과 버릇들이기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2. TV, 비디오, 컴퓨터 등의 매체가 갖는 순기능, 역기능

순기능으로는 우선 창조력을 자극한다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아이들 때에는 극히 한정된 범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경험의 세계가 매우 좁는데 TV를 통해서만 평소에는 할 수 없는 것을 대리 경험하게 한다. 이는 아이들의 창조력에 도움이 되어 그림책이나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게 된다고 한다.

인지발달적 측면에서도 일정부분 장점이 있는데 아이들이 빨리 말을 익히고 글자를 빨리 익히게 된다고 한다. 사회화의 측면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시킨다고 하는데 이때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TV를 교육의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갖기도 한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 또한 만만하지 않다. 우선적으로 아이들이 수동적이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TV 등의 매체는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작용한다. 사람과의 상호작용과는 다른 점이 여기 있는데 장시간 시청할 경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는데 장애로 작용하여 아이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또한 가족이나 또래들과의 관계를 갖는 시간을 빼앗아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경우도 생긴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아이들에게 폭력적 성향을 키워주기도 하는데

이는 아이들이 TV를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런 부정적 행동을 모방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여도 많은 조사 연구 사례는 아이들의 TV 시청시간이 길수록 커가면서 TV가 가지는 역기능적 결과가 나타난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인 영향을 들 수 있는데 안경착용율과 TV 시청시간의 상관관계나 바르지 않은 시청자세로 인한 문제, 바깥활동 등 동적활동시간을 빼앗음으로 해서 오는 문제, 그에 따라 아이들의 행동적 시도로 해서 커지는 모험심과 호기심의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기능들을 잘 살펴보면 어떻게, 어떤 원칙 하에서 TV를 보느냐에 따라 그 부정적 영향이 축소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인이 적절하게 개입하여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어떤 자세로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TV를 보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선택과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원칙들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3. 왜 아이들은 만화영화를 좋아할까?

어린이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시간대의 TV를 보면 대부분이 만화영화로 되어있다. 이는 그만큼 아이들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선호한다는 이야기의 반증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아이들은 만화영화를 좋아하는 것일까? 우선은 빠른 장면의 번개가 아이들의 주의를 집중시킨다는 점이다. 주의 집중 시간이 길지 않은 아이들에게 빠른 장면의 전환은 아이들로 하여금 거기에 빠져들게 하기에 충분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아이들의 발달 특성상 보여지는 모방에의 성향이다. 극도로 단순화시킨 장면의 연속이 현실에 충실한 복잡한 장면보다 아이들이 모방하기에 쉽게 다가온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거기에 현실세계에서는 보기 힘든 색깔과 음향을 극도로 확대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만화영화 가지는 특성과 함께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도 있다.

첫째로 사물의 단순화이다. 만화영화는 사물을 극도로 단순화시켜 이미지화 한다. 진짜 사물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이미지는 현실을 아주 간단하고 쉽게 여기는 경향성을 갖게 만든다. 둘째로는 지나친 속도감이다. 이런 영향은 아이들로 하여금 참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요즘 아이들의 특징으로 인내력의 부족이나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상황에 반응하는 경향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외에도 내용(story)의 천편일률성이나 비현실적 행동에의 모방, 왜곡된 발음과 말투 등이 지적된다.

4. 만화영화의 내용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많은 조사연구 사례는 아이들이 만화영화의 내용을 현실과 혼동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환상세계의 법칙과 현실세계의 법칙을 혼동하여 매체를 통해 본 폭력을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끔 신문에 보도되는 아이들의 TV폭력물의 모방에 따른 사고는 이를 반

증해준다. 공격성이 강한 아이들의 경우 TV의 폭력성향이 강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일상생활에서 실제의 폭력으로 나타나 공격성향을 더욱 높인다고 한다. 언제나 힘을 가진 자가 주인공이고 항상 승리한다는 내용은 아이들로 하여금 공격성과 힘을 가진 인간유형을 선호하게 만드는 영향을 나타 내기도 한다.

문제는 아이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폭력성과 잔인성(웃음으로 치장된 폭력과 잔인성은 거의 모든 만화영화에서 보여지고 있다.), 또한 여자아이들이 즐겨보는 만화로 요술 지팡이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내용 등 비현실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라는데 있다.

5. 어떻게 이러한 부정적인 TV의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인가?

아이들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을 아이들과 함께 시청한 경험이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될까? 문제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아직 판단능력이 완전치 않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인이 적절하게 개입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선은 부모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고 그 내용이 어떤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아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주 TV를 시청하는지 체크하고 적절하게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때는 부모들의 시청습관과 시간도 유념해야 한다. 아이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를 원한다면 부모부터 좋은 습관을 보여 모범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위의 행동을 모방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아이와 함께 규칙을 만들도록 한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수위를 높이지 말고 아이들이 쉽게 지킬 수 있는 정도의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적절한 칭찬과 함께 한단계 더 수위를 높여 새로운 규칙을 정하도록 한다.

적정하게 규칙을 정해 시간도 줄였다면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또하나 남아있다. 시간을 줄인 만큼 아이들이 다른 즐거움을 느끼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다.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나 이야기 시간을 상대적으로 늘리도록 한다. 물론 처음에는 화려한 TV화면에 비해 덜 재미있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분명히 알게 된다. 살아있는 대상과의 상호작용과 일방적으로 기계로부터 내용을 전달 받는 것의 차이를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무조건 막는다고 차단한다고 아이들이 매체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것들이 정말 유용하게 쓰여질지를 고민하는 부모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제대로 부모노릇 하기 또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적어도 TV가 없던 시절의 부모들에게 이러한 고민은 없었을테니 말이다.

좋은 그림책 소개

함께 세어보아요

미프마사 안노 글·그림/마루벌/7,200원



겉표지를 넘기면 “함께 세어보아요”라는 제목과 여러 사물그림이 눈에 들어옵니다. “세어볼까? 해는 하나, 전나무는 둘, 집은 셋...”

또 한장을 넘기면 눈 내린 마을인 듯한데 흐르는 물줄기 이외에는 아무 것
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 0(영)이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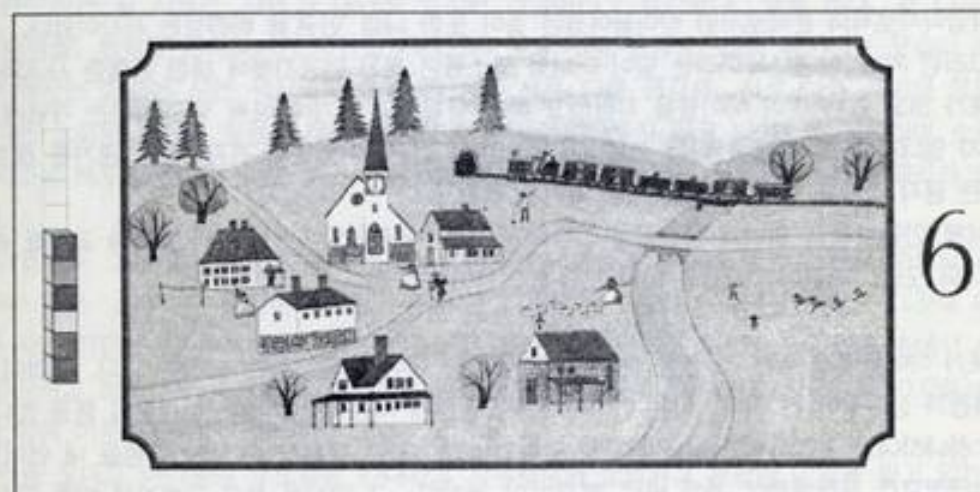
한장 더 넓길까요? 전나무도 하나, 집도 하나, 어른도 하나, 아이도 하나. 왼쪽 화면 한 쪽에 정육면체 하나가 놓여 있고, 오른쪽 화면 한 쪽에는 1이라는 숫자가 써있네요. 그 다음 장면? 전나무가 둘, 집도 둘, 어른도 둘...

이 그림책은 수 개념을 익히는 그림책입니다. 1이라는 숫자가 적힌 화면에는 뭐든지 하나 있습니다. 물론 12이라는 숫자가 있는 화면에는 뭐든지 열두개입니다. 같은 것끼리 모아보고, 그 수를 세어보고 1, 3, 5라는 숫자와 맞추어 보면서 수를 익히는 그림책입니다. '1하고 사과 하나, 2하고 배 둘'하는 류의 그림책보다 복잡하지만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 그림책에서 이야기를 찾아냅니다. 작가는 1부터 12를 숫자로, 시간으로, 열두달로 바꿔 놓았습니다. 이 여러 요소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어, 결혼해!'하는 말은 5라는 숫자화면을 보고 하는 말이고, 12라는 숫자에는 성탄절 모습이 보입니다. 모든 장에 그려져 있는 아이들의 놀이를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또 시계탑의 시계를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수가 쓰이는 여러 가지 것을 모아 그렸기 때문에 수를 익히는 것 외에 수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책장을 넘기면서 “많아 많아” 합니다. 다섯살 쯤이면 재미있게 보겠지요. 아 참! 어른과 아이그림이 너무 작아 구분이 안되어 아이가 셀 때 헛갈려 합니다. 흠이지요.

소개 : 오윤희(그림책을 좋아하는 교사모임, 통통어린이집)





현장교육

인권보육 커리큘럼에 대한 감상문

문유미 · 인천 예술어린이집

이 글은 문유미선생님이 '우리네 아이들' '97년 1/2·3·4·5월호에 연재된 스즈끼쇼조님의 '인권보육 커리큘럼'을 위한 제언'을 감동 있게 읽고 보육교사로서 '인권'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되었다는 감상문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권', 특히나 '인권보육'이란 단어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낯설어서 '우리네 아이들'에 실린 내용을 접하고서야 '아, 바로 이런 것이구나'하고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인권'이라는 말이 특정 계급·계층 이상의 문제제기를 뛰어넘지 못하고 늘 여성인권·노동인권이라는 제한된 계급·계층의 피압박자로서의 문제로서만 받아들여졌던 것이 또한 나의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그러던 차에 '인권보육'이라는 말이 더더욱 생소했던 것은 인권자체에 대한 편협한 사고와 더불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함께 생활하고 있기에 애써 '인권'이라는 개념에 쫓겨 맞추지 않더라도 그 개념에 나의 교육내용이 얼마나 접근되어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아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일련 무시해버렸던 측면도 적지 않다.

이제 '인권보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가슴에 새기며 아이들 앞에 선 '나'의 모습과 교사들 속에서의 '나'의 모습, '어린이집'에서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려 한다.

내가 아이들에게 쓰는 언어 중 반복하여 사용하는 단어로 '뽕꼬마'라는 것이 있다. 그것이 신체적 특징과 상관없이 큰 아이, 작은 아이에게 무분별하게 사용해왔던 것은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 언어 하나하나가 꼬집어주고 싶을 정도로 귀엽고 예쁠 때 그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내 언어로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해왔던 것이 바로 '뽕꼬마'인 것이다. 그 언어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자체를 아이들 중심으로 풀어버리지 못하고 어른들의 애정의 잣대로 사용하면서 다른 교사들도 간혹 그 단어를 쓰는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강화시켜 왔던 것이다. 교사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 속에 내가 놀러앉아버린 것이다.

내가 아이였다면, 그것도 권위적인 부모님 속에서 칭찬받지 못하며 아이라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당해오거나 또는 과보호 속에서 자라온 아이였다면 그 단어 하나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권위적인 어른들 속에 자라나는 아이였다면 자기 존재의 무능력함과 열등감을 심어줄 수 있겠

구나. 또한 과보호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였다면 더더욱 어른 의존적인 경향을 심어줄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 무심코 뱉어내는 교사들의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절실히 느끼게 된다.

얼마전 인천 우리교육정리 소모임에서 교육사상에 대해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그중 루소의 교육사상사는 나에게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였다. 어른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잣대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주입시키는 것에 대한 해악에 대해 통렬히 비판하면서 아이들을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아이들의 발달단계가 갖는 객관적인 상황들을 이해하고 지켜봐주는 것에서부터 교육은 시작되어야 한다는 루소의 말은, 교사인 나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교사들에게 스스로를 반성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나는 아이들을 진실로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로 보고 있는지.

혹여 나는 아이들을 내가 채워주고 가르쳐주어야 할 불완전한 인격체로 상정하고 지도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루소의 교육사상에서 보면 합자원의 법칙이론이 나온다.

'자연'! 우리는 바깥놀이나 자연학습장 견학을 계획하면서 아이들에게 자연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을 했다고 자위할 때가 있다. 우리들은 왜 아이들에게 자연을 보여주려는 것일까? 널려진 자연을 몇시간 참관하듯 보게 하는 견학의 내용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자연이 자연으로서 가지는 생명성과 순수에 역행하지 않는 법칙과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인위적으로 꾸며내지 않고 자연에서 받은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해내며 자연과 내가 일치됨을 느끼게 해주는 과정이 되어야 진정한 자연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이라는 말 자체는 '자연'과 대단히 밀착된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들쭉 하나, 큰 나무 한 그루, 미생물, 동식물 하나하나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서로 공생공존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더불어 사는 세상의 모습일 것이다. 서로 다른 생김새, 서로 다른 흥미의 정도나 서로 다른 느낌의 표현이 일정한 테두리 속에 묶여져 정형화되지 않고 다양함을 인정하며 소중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은, 인간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아이들에게 그런 행복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선 어른들의 생각과 행동이 먼저 수정되고 선행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함을 수용하는 열려진 시각과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자기 진단이 있어야 하겠고 이를 심도 깊게 고민하기 위해선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고 실천하며,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존감을 가지려는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아이들의 부모들을 만나가고 지역사회와 소외되고 부당한 이익을 받고 있는 이 사회의 상처난 부분을 함께 아파하고 극복해가려 할 때 우리 아이들은 보게 될 것이다. 어른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변의 친구들, 형, 아우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 뿌리로 다양한 사람들의 인권을 소중히 생각하는 한 아이는 큰 즐거움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현장소식

인천보육교사회의 저력을 아시나요?

이경미 · 인천 예술어린이집

인천보육교사회는 지난 6월1일 교사회 운영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였다. 그날의 훈훈한 감동을 회원들께 전하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수익사업이 끝난 후 도움을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일일이 다 보내어 수익사업은 재정마련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전형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때 그 감동의 기운이 가시기 전에 서둘러 글을 쓰려 한다. 이미 조금은 늦은 감이 있기에 파란함이 식어버리거나 않았을까 약간의 우려를 가지고...

인천지역 보육교사회의 수익사업!

대(大)사업을 계획하고 그것의 성과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과정은 때로 부딪히는 고민과 어려움에 한숨도 짓고 몇번의 제목을 바꿔가며 그렇게 시행착오의 거들을 겪었다. 결국 우리는 주위의 일반적이고 관계적이었던 일일호프를 낙점을 찍었고 본격적인 준비의 시작은 5월31일 토요일 오후였다. 6월1일 행사의 모든 정리를 마치고 돌아설 때까지 우리중 누구하나 노골적으로 힘들었다고 말한 이는 없었다. 티켓을 할당받을 때의 갑갑함과 힘겨웠던 모습과는 전혀 색다른 분위기를였다.

본격적으로 그날의 에피소드와 우리들의 숨은 저력을 하나씩 하나씩 낱알이 밝혀보이려 한다.

5월31일 준비팀-고정미·김명숙·안경아·이정원·박미향선생님과 문유미회장님 그외 햇내음 자원활동가 등이 하나가 되어 야채를 다듬고 씻고 썰고... 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대자보와 행사에 필요한 그림과 사진을 정리했고 차림표와 이름표를 준비하기에 바빴다. 그렇게 많은 야채를 다듬으며 우리는 계속 누구 시집 보내는 잔치집 같다며 내일 당장 누구 한명 시집 보내야 한다고 신나는 농담을 해대며 너무도 기쁘게 일을 했다. 산더미처럼 쌓인 야채를 씻어내고 그것을 받쳐낼만한 그릇이 부족해 우리는 한가지 묘안을 냈는데 그것은 돗자리를 깔고 널어서 물기를 빼자는 것이었다. 아침이 되어 와보니 정말 물기 하나 없이 뽕뽕뽕하게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는 야채를 보며 다시 한번 전날의 웃음을 찾아낼 수 있었다. 도토리묵과 골뱅이에 들어갈 파채를 썰는데 도무지 엄두가 나질 않아 이유 없는 돼지고기 한근을 사고 고기집에 썰어달라는 부탁을 했던 에피소드도 생각이 난다.

6월1일 준비팀은 일찍부터 나와 짐을 나르고 이제 정말 시작을 위한 시작에 돌입! 풍선을 달

고, 그림과 사진을 붙이고 이것저것 붙일 건 다 붙였다. 주방에서도 음식별로 자리를 정리하고...

드디어 12시. 첫손님 등자-양, 첫주문 주방에 전해자다. 메뉴는 골뱅이 소면!

골뱅이 소면에 골뱅이가 없었다면? 그 황당한 상상이나 가우?

우리의 호프시작 첫 에피소드는 이렇게 시작됐다. 다행히 첫손님이 자모였기에 우리는 이런저런 코치를 받을 수 있었다. 무엇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첨가했고 덜어낼 것은 덜어냈다. 주문의 횟수가 늘수록 우리의 솜씨도 늘었고 자신감 역시 천장을 뚫었다. 처음에 감이 없어서 접시 가득 터무니없이 푸짐했던 실수. 이제 다시 소비적인 실수는 역시 더 이상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본격적인 술때(?)가 되면서 장내는 활기가 돌며 움직임이 빨라졌다. 신이 났다. 주문받아 오는 이, 전해주는 이, 주방에선 설새 없이 손들이 기쁨에 어쩔줄 몰라 요기조기 지저분하지 않는 기쁨까지 질질 흘리며 몸을 놀렸다. 우리 행사의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건 문화행사였다. 처음 여는 마당의 풍물, 꽃다지 서기상씨와 윤미진씨의 신나는 노래공연, 그리고 통신노래패와 유인교의 풀잎노래패, 이정원선생님 후배들이 결성한 노래패의 노래로 장내의 뜨거운 열기는 뚫고나간 천장을 넘어서 하늘도 뚫었다. 공연공연마다 넋이 빠진 손님들과 우리들의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것을 놓치고 굳건히 주방을 지킨 이도 있었지만.

초각이 바뀔수록 분위기는 고조를 더했고 그럴수록 우리 모두의 신나는 움직임도 보조를 맞추어 활기를 더했다. 아쉬운 끝냄 시간 22:00시, 30분쯤 여유를 팍팍 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으로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일일이 돌아다니며 마무리 시간이 되었음을 알렸다.

정리할 것도 만만치 않았다. 그렇지만 우리의 힘(?)도 만만치 않았기에 길지 않은 시간내에 똑딱! 모든 뒷정리는 끝이 났다. 서로서로에게 수고했다는 따뜻한 인사를 뒤로 하고 돌아서 가는 선생님들 그리고 햇내음 자활들의 뒷모습에서 결코 오늘 하루 우리가 해낸 일이 만만찮은 힘든 일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제야 비로소 긴장 풀린 피곤함이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힘있는 인사를 나누지 않았던가!

수익의 많고, 적음-그래, 충분히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이 수익사업을 통해 많은 수익, 그보다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다운 우리의 따뜻한 정으로 뚝뚝 뚫린 커다란 아니, 거대한 저력을 확인했다. 참으로 소중한 얻음이라 생각된다. 많은 선생님들, 자활들, 그외에 티켓을 사주시고 많이 많이 잔을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끝으로 그날의 호뭇했던 감정을 정리하려 한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보육교사회 수익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가칭] 한국보육교사회 인천지부 재정마련을 위한 '일일호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새 여름 행렬을 재촉하는 햇살이 부쩍 뜨거운 6월에, 저희 '[가칭] 한국보육교사회 인천지부'가 운영기금 조성을 위해 마련한 '일일호프'는 귀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와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으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보육권리 확보를 위한 보육교사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격려하는 의미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아동에게 올바른 보육권리를, 보육교사들에게는 보육교사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제반 조건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힘있게 해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격려와 뜨거운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칭) 한국보육교사회 인천지부

여름철 특집(1)

테마여행

황금 같은 휴가, 어디 물을 떠나볼까요?

· 편집부 엮음 ·

달달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조금은 탁 트인 공간에서 추천할라 적었음을 맛보고 싶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네 아이들』에서는 여름휴가를 앞두고 피서지로 고민할 여러분을 위해 4인이 추천하는 가볼 만한 피서지 4곳을 소개합니다.
도시탈출, 휴가는 이런 곳이 어떨까요?

얼굴과 석양과 안개가 있는 섬... - 홀로 호젓이 떠나보세요

여자 혼자 여행하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런 곳은 어떠세요?

서해의 많은 섬중에 '이작'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섬이 있습니다. 이십가구쯤으로 구성된 마을이 두개 있고, 작은 교회 하나와 천주교회 하나, 작은 초등학교가 있는 섬이지요. 바로 앞에 또 하나의 이작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요. 대이작과 소이작 사이의 작은 바다는 잔잔하기가 호수 같지요.

소이작에는 해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여자 혼자 여행하기는 적당치 않다는 마을 할머니의 충고에 따라 저는 대이작의 이장님댁에 묵었었습니다.

이작의 아침에는 산위로 흐르는 안개와 함께 시작됩니다. 제법 높아서 잘 닦아논 길을 따라 올라가는 데만도 30분이 족히 걸리는 산이지만 곳곳에 풀어놓아 기르는, 그래서 이제는 야생염소처럼 보이는 염소떼들이 간간히 놀래어주기 때문에 오르기에 그리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산길을 따라 걸으면서 보는 바다의 모습도 일품이구요.

이작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장관은 고운 모래와 바위 벼랑이 어우러진 작은 해수욕장에서 보는 일몰과 밀물입니다. 서해는 크고 작은 섬이 많아서 바다로 떨어지는 해는 볼 순 없지만 떨어지는 해를 향해 난 금빛의 물길은 그대로 걸어들어 가고 싶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물때를 잘 맞추면 두려울 정도로 빨리 들어오는 밀물을 보면서 사색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작에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아요. 1호선 전철을 타고 인천역에서 내리시고 연안부두행 버스를 타시면 한 30분 안에 연안부두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이작행 배를 타고 2시간정도. 이작행 배 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겨울 즈음에는 하루에 한 번, 여름 즈음에는 하루에 두 번 정도가 다닙니다. 물때에 따라 배시간이 달라진다고 떠나기 전에 배 시간은 미리 알아보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작엔 가게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모두 사가지고 가셔야 해요.
행복한 여행되세요~.

추천인 : 이선주(한국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

강원도 인제 내린천 - 가족, 친구들과 함께 가세요

인제에서 현리로 내려가는 도로를 따라 강이 흐르고 있다. 잔잔히만 흐르지 않고 아찔할 정도로 세찬 물결이 있다. 이곳이 바로 급류타기를 즐길 수 있는 내린천이다.

강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군데군데 급류타기를 즐기기 위해 줄을 맞춰서 힘찬 소리를 지르고 있는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다.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이 길게 뻗어진 강변에 민박할 곳도 많지만 야외캠핑을 즐길 수 있는 밤섬유원지가 친구들과 가족과 가기에 적당하다. 밤섬유원지는 강 가운데 자리잡은 곳으로 아주 넓어서 텐트를 넉넉히 칠 수 있고 통나무집과 방갈로가 있어 편하게 다녀올 수도 있다. 수영도 하고 낚시도 하고 잡은 물고기로 매운탕도 끓여먹고 심심하면 급류타기도 하고, 흠이라면 캠핑장에 노래방이 있어 밤에 조금 소음공해에 시달린다는 것.

가는 방법은... 지도를 보고 가세요. 단, 넓고 확실한 길로 가세요(돌아올 때 지름길로 간다고 지도보고 가다가 비포장 시골산길을 만나서 몇번씩 내려야만 했다. - 무게를 견딜 수 없어서).

추천인 : 김진숙(남부 보육교사회장)

전라남도 순천 선암사 - 연인라 함께 떠나세요

순천까지 기차를 이용하고 조계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선암사는 순천에서 물어서 가세요. 잘 생각이 나지 않네요.

선암사는 절 모습이 아주 독특하여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고 암자도 많아 볼 것도 있고 더욱이 절 입구까지의 길이 아기자기하니 너무 좋습니다. 계곡도 호젓하여 발을 계곡 물에 담그고 연인과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그만.

선암사까지 가는 도중에 '낙안마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민속마을로 우리나라 고유의 정치를

맛볼 수 있다. 미식가라면 선암사를 여행하고 꼭 이곳을 둘러보길. 선암사 입구에 기사식당이 있는데 시골음식맛으로 전라도의 음식미학을 한껏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추천인 : 정은진(봉천동에기방 교사)

소양호를 따라 뱃길로 내성악까지 그리고 동해바다-연인려 함께 떠나세요

바다, 강, 산, 계곡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여행지.

휴가의 절정기를 조금 지나 그나마 덜 북적거릴 때 사랑하는 연인과 장기여행을 계획해본다.

오후쯤 춘천행 기차를 타고 춘천역에서 내려 걸거나 택시를 타고 공지천 근처로 가서 일단 숙박을 잡아놓고-버스터미널 근처에 깨끗한 여관이 많음- 공지천의 조금은 탁한 호수에서 뱃놀이를 즐긴다. 넓은 호수의 노을은 어디가 하늘이요, 어디가 물인지, 하늘이 모두 내려앉아 물과 하늘 중간쯤에 떠있는 듯한 환한 느낌을 준다. 배에서 내려 호수에 떠있는 술집에서의 연인과의 소주 한잔은 '술은 내가, 마시는데 취하긴 호수가 취한다'는 어느 시인의 시귀절이 떠오르게 하니 술맛 또한 일품이고.

다음날 새벽 일찍 소양댐으로 가서 인제행 배를 타고 뱃길여행이 시작된다-배시간은 여관주인에게 물어보길. 하루에 한두번 운행한다. 1960년대 소양댐 건설로 소양강 일대가 모두 물에 잠기는 바람에 호수 같은 강이 생기게 되었고 강 위에 산들이 떠있는 듯한 그 경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아름답다. 선장아저씨의 주변경관의 설명은 양념과도 같이 재미를 더해주며, 소양댐 건설로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된 이 곳이 많은 사람들의 여행지로 각광을 받는 현실의 아이러너를 느끼게 한다.

50분의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쉬움을 남기고 신남이나 인제에 내려 인제 버스터미널까지 잘 오지 않는 버스를 한참만에 타고 터미널로 가서 역시 자주 다니지 않는 속초행버스를 탄다. 이 여행지를 연인과 함께 떠나라는 것은 바로 이 때문. 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만만찮기에, 연인과는 기다림도 즐거울 수 있기에. 속초행 버스는 내설악을 거쳐 속초까지 가는데 설악의 극치는 내설악이라고 못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실감날 정도로 산새와 계곡이 빼어나다. 중간 중간에 무작정 내려 등산도 하고 계곡인지 강인지 모를 정도의 큰 계곡에서 발담그고 밥도 해먹고, 만약 텐트를 가져간다면 이 한적한 곳에서 야영을 해볼지도 그럴싸하다. 한적한 곳이라 민박은 거의 없다.

느긋하게 쉬다가 다시 속초행 버스를 타고 낙산에서 내려 민박을 하고 바다여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낙산에서부터 속초, 그리고 강릉까지의 바다여행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교감이 가졌기에 생략하고 하여튼 근 3박4일 또는 4박5일간의 여행치고는 알뜰살뜰히 너무도 훌륭한 여행지가 될 것임을 자부하며, 밤바다에서 연인과 속삭임의 여운을 느껴보시길...

애인이 있는 자들이여! 올 여름에 떠나라. 호수, 강, 산, 계곡, 바다가 있는 곳으로.

추천인 : 박정애(본회 조직부장)

여름철 특집 (2)

별미로 아이들 입맛을 찾아주자!

· 편집부 엮음 ·

무더운 여름! 의복상식증에 걸리기 쉬운 계절. 그리고 식욕부진.

어른이집 아이들도 유난히 여름철이 되면 먹기를 싫어하여 투정을 부리기 현상입니다.

이른 되면 어른이집에서는 식단을 짜느라고 고심들을 하게 되는데, 이 무더운 여름날

아이들의 건강과 맛을 고려하여 별미로 만들어 먹는 먹거리를 부산지역 선생님들이

성의껏 소개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오색주먹밥

식욕이 없는 여름철, 아이들에게 오색주먹밥을 해줘보자. 일단 시각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아무리 입맛이 없는 아이들이라도 좋아한다. 게다가 여러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으니 치치기 쉬운 여름엔 더욱 좋은 먹거리.

● 재료

볶은 밥, 삶은 달걀, 쇠고기, 김, 검정깨 등.

● 만드는 방법

- 1) 된밥에 각종 야채를 넣고 볶은 후 꼭꼭 눌러서 먹기 좋은 크기로 둥글게 만들어 놓는다.
- 2) 삶은 달걀을 노른자와 흰자로 분리한 후 강판에 간다.
- 3) 곱게 간 쇠고기에 참기름과 소금을 넣고 볶아 놓는다.
- 4) 김은 바싹바싹하게 구워서 부순다(양념한 김보다는 김밥용 김이 적당).
- 5) 모든 재료가 준비되면 둥글게 만 밥을 각각의 재료 위에서 둥글둥글 굴리면 예쁜 색깔의 오색 주먹밥이 된다.

☆ 응용

된장국에 곁들여 먹으면 더 맛있다.

(소개 : 아기자립터어린이집)

야채죽

요즘 아이들은 햄버거와 같은 음식을 즐기게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게 된다. 야채죽은 야채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야채를 쉽게 먹일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아침을 굶고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이들의 식사 대응으로 좋다.

● 재료

쌀, 각종 야채(시금치, 당근, 양파 등).

● 만드는 방법

- 1) 쌀을 물에 1시간 정도 불린 후 물기를 빼서 절구통에 찜어도 좋고, 안 찜어도 괜찮다.
- 2) 필요한 야채를 강판에 간다.
- 3) 냄비에 쌀을 넣고 참기름을 부은 후 1분 정도 볶다가, 야채를 넣고 다시 1분 정도 볶은 후 쌀의 양보다 3배 정도 많은 물을 붓고 30분 정도 은근하게 끓인 후 소금간을 한다.

☆ 응용

여러가지 종류의 야채를 한꺼번에 넣어도 되고 야채를 한가지만 넣고 만들어도 되는데, 당근죽의 경우는 색깔도 예쁘고 맛도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한다.

쇠고기를 곱게 갈아서 같은 방법으로 만들면 맛있는 쇠고기죽이 된다.

(소개 : 아기자람터어린이집)

식혜

그저 시원한 것만 찾게 되는 계절, 인스턴트 음식이나 시중에 나와있는 캔음료 등을 많이 먹는 아이들에게 우리 전통음료를 먹이자. 이쯤처럼 더위를 식혀주지 않을까?

● 재료

약간 굳은 식은밥, 엿질금, 설탕, 생강.

● 만드는 방법

- 1) 찬밥을 물에 한 번 씻어 둔다.
- 2) 엿질금 가루를 물에 씻어 쌀겨를 버리고 엿질금 물만을 받는다.
- 3) 엿질금 물에 찬밥을 넣고 보온밥통에서 보온 상태로 밥알이 20알 정도 위로 뜰 때까지 둔다(약 3시간 정도).
- 4) 밥알이 20알 정도 위로 뜨면 그물과 밥알을 냄비에 부어 설탕을 달지 않게 넣고 생강도 조금 넣어 다시 팔팔 끓인다.

(소개 : 주감어린이집)

양파튀김

까도 까도 쉽게 제 속을 보여주지 않는 양파. 이 양파를 고기류 특히 돼지고기에는 꼭 곁들여야 좋다는데 아이들은 용케도 음식에서 양파만을 골라낸다. 흔히 볶아주기 쉬운 양파를 한 번 튀겨보자. 동글동글한 모양도 이쁘지만 맛도 좋아서 양파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잘 먹는다.

● 재료

양파, 밀가루, 식용유, 소금 조금, 달걀.

● 만드는 방법

- 1) 양파를 동그란 링모양 그대로 약간 두껍게 썬다.
- 2) 밀가루, 달걀, 소금, 물을 넣고 튀김옷을 만든다.
- 3) 식용유를 튀김 냄비에 부어 온도를 높인다.
- 4) 양파를 튀김옷을 입혀 튀긴다.

(소개 : 주감어린이집)

닭계장

닭은 값싸고도 질 좋은 단백질을 다량 함유한 영양 많은 식품이다. 또 아이들도 좋아한다. 더운 복날에 일부러 삼계탕을 먹으며 무더위를 이겨낸다는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삼계탕을 한 마리씩 안겨주기에 무리일테고 대신 닭계장으로 복날의 더위와 한판 붙어보시길.

● 재료

닭 1마리, 콩나물, 대파(많이), 양념(마늘, 고추가루, 국간장, 참기름, 식용유)

● 만드는 방법

- 1) 닭은 기름방울을 제거하고 조각을 내어 손질하여 씻은 뒤, 솥에 넣고 삶아낸다.
- 2) 삶아낸 국물은 버리지 말고 보관하며, 닭고기는 식힌 후 살고기를 잘게 찢어 발라낸다(살을 발라내기 힘든 부위는 그대로 두고 나중에 끓일 때 넣는다).
- 3) 잘게 찢은 살고기를 솥에 넣고 참기름과 식용유를 두르고 볶는데, 이때 마늘 다진 것과 고추가루를 넣어 함께 볶아준다.
- 4) 적당히 볶은 뒤에 육수(닭고기를 삶아낸 물)와 물을 부어 팔팔 끓인다.
- 5) 한번 끓으면 콩나물 씻어둔 것과 적당한 크기로 썰어둔 대파를 넣어 한소끔 더 끓인다.
- 6) 간은 국간장으로 맞추어낸다.

(소개 : 해봄어린이집)

감자부추전

감자가 제철이다. 값도 무척 쌀 뿐더러, 제철 음식을 많이 먹어주는게 한 해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란다. 게다가 요즈음 굶주리는 북한 동포의 아픔을 나눈다는 의미로 가는 곳마다 감자 먹기가 유행이다. 감자부추전 먹고 몸 튼튼, 동포에 가득? 이런 걸 일석삼조라고 하나...

● 재료

감자, 부추, 양파, 식용유, 밀가루, 달걀, 소금 약간.

● 만드는 방법

- 1) 깨끗이 씻은 감자를 강판에 간다. 여기에 양파도 갈아서 함께 섞는다.
- 2) 부추는 손질하여 씻은 뒤에 1-2cm 길이로 썰어둔다.
- 3) 1)과 2)를 모아 밀가루를 적당히 뿌리고, 달걀을 넣어 잘 섞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 4)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한 숟가락씩 떠 넣어 전을 부친다.

♡ 응용

부추 대신 쫄면이나 살짝 데친 오징어를 잘게 다져서 섞어넣어도 좋다.

(소개 : 해봄어린이집)

돼지고기야채전

주먹밥을 해도, 죽을 씹어도, 튀겨줘도 야채를 먹지 않는 아이, 일일이 골라내는 아이에게 이런 요리는 어떨까? 돼지고기야채전은 육류를 야채와 함께 먹을 수 있어 고른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데다 야채를 갈아넣기 때문에 야채를 싫어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도 잘 먹는다. 물론 맛은 기본.

● 재료

돼지고기, 당근, 양파, 밀가루, 달걀, 식용유, 소금 약간.

● 만드는 방법

- 1) 돼지고기, 야채를 간다.
- 2) 1)에 밀가루(또는 부침가루), 달걀을 넣고 소금으로 간하여 약간 되직하게 반죽한다.
- 3) 한 주걱씩 넣어 후라이팬에 굽는다.

(소개 : 포구나무어린이집)

오징어피망떡볶이

요즘 오징어가 많이 잡혀 값이 무척 싸다. 오징어는 대개 데치거나 오징어볶음을 해서 먹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에 오징어를 한 번 넣어보자. 매번 먹는 맛의 떡볶이보다 맛도 별미라 아이들이 더욱 좋아한다.

● 재료

오징어, 흰떡, 피망, 당근, 양념장(간장, 설탕, 다진 마늘, 다진 파, 깨소금, 참기름, 후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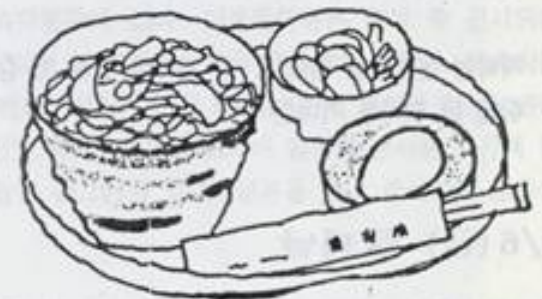
● 만드는 방법

- 1) 오징어는 내장을 빼내고 껍질을 벗겨 한쪽에 솔방울 무늬로 칼집을 넣어 길이 4cm 넓이 1cm 크기로 썬다.
- 2) 떡은 굵은 것을 준비해 4cm 길이로 썰어 세로로 4등분한다.
- 3) 피망은 씨를 빼고 같은 길이로 굵게 채썰고 당근도 마찬가지로 썬다.
- 4) 준비한 양념재료를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 5) 프라이팬에 기름을 약간 두르고 뜨거워지면 떡과 오징어, 양념장을 넣고 살짝 볶은 뒤, 당근, 피망을 넣고 남은 양념장을 부어 볶는다.

♡ 응용

양념장을 만들 때 고추장 혹은 고춧가루를 적당히 넣어 만들어도 좋다. 아이들이 매운 것을 싫어한다는 짐작은 어른의 편견일 뿐이다. 어려서부터 김치나 다른 매운 음식을 조금씩 경험해야 자라서도 김치나 매콤한 우리 입맛의 음식을 찾는다.

고추장을 넣은 떡볶이를 자주 먹어서인지 우리 아이들은 호호 불면서도 무척 좋아한다 (떡볶이 만들 때 케첩을 넣어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 (소개 : 해봄어린이집)



국제연수(1)

일본 보육연수 일기

김진숙 · 남부 새터어린이집 교사

6/5 (목) 첫째날

이질감을 느끼지는 못하겠다. 도시여서 그러나? 서울과 별반 다를게 없다.

차선이 좌측통행이라는 것, 도로가 복잡하고 많이 막힌다는 것-일방통행인 도로가 많고 아무 데서나는 아니겠지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유턴이 가능했다. 또 자전거를 인도에서 탄다는 것.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간판이 일본어로 써있을 뿐, 한자와 영어를 겸용해 해석상 그리 큰 불편은 없다.

라포르 시스템 영재 교육기관.

학원을 본 듯하다. 아동 교육을 위해 교사대 아동비율이 낮고(일대일 대응이 가능하다) 보수도 좋고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는 것은 좋은 데 진짜 '일류'를 위한 기관이다. 솔직하게 '사장'이라 표현하고 있다. 주식회사라고 표기도 하고.

다케와리 보육에 대한 강연.

역사, 의미, 추구하는 바에 대한 이해 정도. 하루일과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혼합연령보육을 통해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알고 싶는데 그런 부분은 해소되지 못하였다.

얻은 것은 어린이를 대동하게 보자라는 것. 인권보육이 실제 행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성화 보육소와 희망의 문이 기대된다.

지탁연 연수팀을 만났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

잠을 잘 자기를 기대한다.

6/6 (금) 둘째날

성화보육소. 2층 건물. 방이 6개. 1층의 방들은 모두 마당과 통해져 있고 문이 활짝 열려있다.

도모요 선생님을 만났다. 작년과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통로에서(신발장이 있는) 한아이를

안고 앉아서 3,4명의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노래도 부르고, 아주 친근감 있는 모습이다.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 아쉬웠지만 눈빛만으로 정말 반가와함을 알 수 있었다. 나도 물론 진짜 좋았고,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싶은데 왜 아는 인사말도 나오지 않는 걸까? 아이들이 자유롭게 왔다갔다 한다. 방마다 여유가 있어 보인다.

희망의 문. 영아 보육소는 다른 건물에 있었다. 무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곳과 넓은 장소가 있다. 3조로 나누어 방마다 돌아다녔는데 조금 정신이 없었다. 하도 빨리빨리 다녀서, 아주마선생님과 작년 연수 왔던 선생님을 만났다. 영아방 위에는 아픈 아동을 위한 방이 따로 있다. 부모와 간호사가 1명씩 있다. 아이들을 위함을 알 수 있었다. 장애아도 있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 있으니 다른 아이들이 이름을 가르쳐 준다(가이드가 이름을 잘못 부르자 다시 정정해줌). 어린이들은 장애아를 장애를 가지 이상한 아이라기 보다는 그 아이 자체로 대한다.

비가 갠 후 아이들이 마당에 나와 진흙탕에서 논다. 얼마나 좋을까? 그럴 수 있는 마당과 자유로운 분위기가 부럽다.

일본선생님들과 강습회, 간담회를 가졌다. 성화, 희망의 문 선생님들이 손유희,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 메론빵 노래가 계속 맴돈다.

1시간씩밖에 방문 못해서 아쉽다.

신사이바시는 명동과 같은 거리다. 특이하다면 건물과 건물사이에 지붕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 화려하지도 않고, 오락실이 제일 밝았다. 눈에 확 띄는 곳이다. 서점도 있다. 보육소가 있는 동네에는 집집마다 화분과 꽃, 나무가 있다. 아주 작은 자투리땅이라도 식물이 자라고 있다. 그래서 더 도시의 느낌을 못받나보다. 어느 시골 동네에 온 것같이 정겹다.

저녁에는 연수팀의 숙소에 갔다가 모모다시에 갔다. 집이 생각보다 꽤 넓었다. 거실도 있고, 밤에는 김덕환 선생님이랑 변미양, 김광민씨, 연수팀 4명과 선주언니, 선미선생님과 2시까지 보냈다.

6/7 (토) 셋째날

관광한 날.

엑스포 공원에 갔다. 아동문화관과 국제민속박물관에 갔다. 아동문화관은 책이 쪽 전시되어 있다. 마음대로 볼 수 있었다. 일어를 모르니 그림만 볼 수밖에. 조금 훑어보다 나왔다. 민속박물관은 시간이 좀더 있었으면 찬찬히 보면 좋았을텐데.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일본문화관을 관리 아저씨께 물어봐 일본 문화를 보고 나왔다. 사진도 찍고, 일본에 왔기에 일본의 냄새를 사진에 묻혀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교사들은 안그런가 보다. 일본을 그리 좋아하지 않음이 많이 드러난다.

교토. 이조성과 청수사.

이조성은 실내 복도를 돌아서 안을 볼 수 있게 했다. 아주아주 넓다. 정원은 우리와 다르더라. 아기자기한 느낌이다. 잔디가 꼭 펼쳐진 것이 아니고 나무가 많다. 경복궁이나 창경궁과는 다르다.

절은 어쩔 그리 시끄러운지, 고요한, 조용히 해야하는 절과 다르다. 관광객도 많고 시끌벅적하다. 불상도 없다나. 스님도 못 본 것 같다. 정신이 없어서 몰랐을 수도 있지만.

나라에 가서는 사슴공원만 봤다. 일본이란 나라는 글세... 일본을 알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다.

6/8(일) 돌아온 날

3일 동안 잠을 잘 못 잤는데 잠이 안온다. 집에 와서는 엄마, 아빠께 다녀온 이야기를 했다. 몇마디 하다보니 더이상 할 이야기가 없었다.

모르겠다. 일본이란 나라가 어떤지, 오사카가 어떤지, 다페와리 보육이 어떤지.

너무 짧다. 좀더 오랜 기간의 연수를 하고 싶다. 아니, 하루라도 한 보육소에서 생활을 한다면 뭔가 감이라도 잡힐 것 같다. 장기간 연수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좋겠다.

이번 연수를 통해 그래도 자부심이 생겼다. 내가, 새터가, 새터 교사들이 아주 잘 하고 있다는 자부심. 마당이 넓고, 그것이 제도화 되어있고, 교사들의 대우가 좋고, '다페와리 보육'이라고 정리된 교육관이 있는 것은 부럽지만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아이들을 존중하고 아이들을 위하고 있는 참 좋은 어린이집, 교사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물론 부족한 게 없는 건 아니지만.

또하나 연수기간 얻은 것은 어린이를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대등하게 대하자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실생활-말, 행동, 환경 등-에서 실천하는데 더 노력하자라는 다짐이다.

이런 다짐과 자부심이 오래 가기를 바란다.

↓ 일본연수참가팀 단체사진, 일본선생님들과 함께 찍었다.



국제연수(2)

일본연수를 다녀와서...

이강선주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는 보육교사들의 자기점검과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보육교사 해외연수를 기획하였다. 1차 기획 아이템은 지역사회탁아소와 6년전부터 보육교사교류활동을 벌여왔던 일·한보육교사교류회가 있는 일본의 오사카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다페와리 보육(혼합연령 보육)'이었다.

연수 참가자는 현재 민간·가정보육시설에 근무중인 시설장과 교사, 국공립보육시설의 교사들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연령으로 23명이었다. 연수는 3박4일로 진행되었고, 그중 이틀이 연수로 진행되었다. 연수의 주요 부분은 다페와리보육 철학에 관한 강연과 보육소 방문, 교사들과의 간담회로 이루어졌다.

강연은 "왜 다페와리인가?"란 제목으로 성애원의 에다모또선생께서 해주셨다. "25년전의 성애원은 엘리트지향적인 보육소였다. 그러나 그해 9월 장애를 가진 시계루를 받기 시작하면서 장애보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장애아동들 사이의 시계루는 매년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장애아통합보육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 에다모또 선생은 "이제까지의 교육이 비장애아만을 위한 교육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한 공간에 보육하고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따로 보육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은 시계루를 장애아로 보지 않고 시계루로 보았다. 결국 각 사람마다 뛰어난 능력이 있지만 잘못된 부분만을 강조해서 그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아이의 인식이나 성장을 위축하게 하는 것이다. 비장애아나 장애아 모두 그 자신의 뛰어난 부분을 강



← 누워만 있는 꼬마,
그러나 친구들의 관심에 즐거
운 바깥놀이.

조함으로써 자신을 가지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자신감은 아이들 안의 관계에서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느끼는 곳도 보육원이다. 이 사회의 주인공이 나임을 알고 내가 이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은 내가 중심이지만 타자와 함께 하는 관계도 중요하다. 각자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 그러나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라고 말한다. 결국 시계루군은 성애원을 졸업하게 되었고, 마지막 졸업연주회에서 큰북을 맡은 시계루는 다른 아이들처럼 함성처럼 제 위치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큰북을 칠 시간이 되면 반드시 돌아와서 제 몫을 했다고 한다. 에다모또 선생의 강연을 통해 어렵게나마 느낄 수 있었던 다페와리 보육철학은 균일성을 강조하는 일본의 문화속에서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하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려는 노력이라고 생각되었다. 혼합연령보육의 실재운영방식에 대한 강연이 아닌 점이 아쉬웠다. 그러나 다페와리 보육의 실재운영방식은 아동을 보는 교사의 시각을 고정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둘째날 연수는 희망의 문 보육소와 성화보육소의 견학과 보육교사들과의 간담회였다. 희망의 문 보육소와 성화보육소 견학에서 가장 인상 깊은 점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구성과 남자선생님의 존재였다. 건물의 두배쯤 되어 보이는 넓은 마당과 아이들이 충분히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커다란 창이 있었다. 건물 안은 통자로 넓은 공간이 많아 아이들이 충분히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아이들은 공간의 분리에 별 상관없이 아무반에서나 놀고 있었다.

↓ 영아 4명이 동시에 탈 수 있는 유모차. 아가들의 햇빛 쏘이기 나들이.



은 점심을 전시해놓은 작은 유리상자. 엄마들이 돌아왔을 때 오늘 아이들이 먹은 음식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놓은 것이다. 비 갠 후 오후에 다시 간 희망의 문 마당에는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맨발로 흙탕물을 뽕기며 놀고 있었다. 네명이 탈 수 있는 신기한 유모차를 타고 아가들도 나와 햇빛을 쬔고, 장애를 가지고 있어 움직일 수 없는 아이를 안은 선생님은 아이의 발을 조금씩 흙탕물에 적셔주고 있었다. 일정에 쫓겨 시설에서 한시간씩 밖에 견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관계는 어떤지에 대해 관찰할 수 없어서 아쉬웠다.

1) * 안은 에다모또 선생의 강연내용 요약

↓희망의 문에서 감사의 선물 전달식. 선물은 우리나라 탈출에서 많이 나오는 각시탈과 영감탈이었다.



점심을 먹고나서 일·한보육교사교류회선생님들이 마련한 일본 유아교사 실재강습이 있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배운 내용을 익힐 수는 없었지만, 일본 선생님들의 성실한 준비를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에 우리 연수팀의 "아리랑"과 일본 선생님들이 부른 일본민요"유아게코야게(석양)"의 완벽한 하모니는 멀고도 가까운 나라라는 일본과 한국의 보육교사들의 아이를 위한 마음은

한가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다.

다페와리 보육연수 외에도 영재교육기관인 '라포르시스템오오사카 어린이센터'를 견학하였다. 이곳은 다페와리 보육을 하고 있는 보육소와는 전혀 다른 일본 유아교육의 다른 한면이었다. 이곳의 목적은 고급 사립학교에 아이를 보내기 위한 학원으로 아이들의 집중력을 최대화시키는 교육방식으로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교사는 아이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이톤의 커다란 목소리로 그림의 동물이름을 빠르게 불러주고, 아이는 온 신경을 집중하여 이를 외운다. 1주일에 한 번, 한시간 반 수업에 6세 이하 아동은 2만엔(약16만원), 6세 이상 아동은 35000엔(약28만원) 정도의 고액이었다. 사장이 말하는 사업의 비결은 고액의 월급을 주고 실력있는 교사를 쓰고, 부모가 아이의 변화를 실감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이곳을 견학하면서 몇십년 후의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이런 곳에서 인간관계가 빠진 입시교육만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하는 걱정이 들었다.

마지막날 일정에서는 일본의 엑스포장에 한 관인 국제아동문학관과 민속학박물관을 견학하였다. 민속학 박물관에는 세계여러나라의 민속을 보여주는 여러 전시관들이 있었고, 전시된 물건을 모니터에 대면(그저 대기만 해도) 그 물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신기한 장치가 있었다. 어린 아이들이 어른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관람을 할 수 있는 배려가 되어 있었다. 연수팀 선생님들은 아이들 교육자료로 사용하고 싶은 욕심에 열심히 사진기의 셔터를 눌러대었다. 다음 일정에 쫓겨 빠르게 엑스포장을 빠져 나오면서 얼마전에 가본 설렁한 대전 엑스포장이 떠올라 씁쓸한 기분이었다.

처음으로 준비한 해외연수였기에 너무 많은 것을 욕심내는 바람에 너무나 팍팍하고 바쁜 삼일이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불명없이 열심히 연수에 참가해주신 선생님들과 열심히 연수를 준비해주신 일·한보육교사교류회 선생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린다.

일본의 다페와리보육연수는 일·한보육교사교류회와 함께 정례화된 사업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회를 거듭할 수록 더 알찬 내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 나아가 해외의 여러 모범적인 보육시설의 발굴과 정리작업을 통해 한국보육사업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할 것이다.

육아일기

유빈이도 반항기?

나은미 · 고양시 오손도손에기방

14개월이 된 유빈이를 보고 있으면 3살, 7살의 반항기와 사춘기때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고 말을 배우기 시작한 몽알만한 아이가 무엇이든지 자기하고 싶은대로 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며 때를 쓰고, 짜증을 냅니다.

아침에 혼자 일어나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다가도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서면 두 팔을 벌리고 안아 달라고 징징댁니다.

간식을 먹거나 밥을 먹을 때는 그릇으로 상을 두드리며 빨리달라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면 한 번씩 웃고나서 못들은 척하며 더 두들겨댁니다.

누워있는 친구나 언니들을 보면 재워 준다고 "자장, 자장"하며 토닥거리는데 싫다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때어놓으면 또 기어가서 건드리고 울기라도 하면 그게 재미있는지 더 그런답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그 앞에 딱 붙어서 이것저것 스위치를 눌러댁니다. 눈 나빠진다고 말리면 소리까지 지르며 계속 하겠다고 합니다.

밀가루 반죽놀이를 하면서 입에 넣지말라고 하면 뺨히 쳐다보면서 한번 입에 대봅니다. 먹지말라고 말하는 엄마의 심각한 얼굴에 악물리려는 듯 빙그레 웃으며 입에 넣고야 맙니다.

자정이 넘도록 잘 생각을 않고 놀길래 이제 자야 할 시간이라고 하며 안아다가 자리에 눕혔더니 발 버둥을 치며 물어댁니다. 뭐가 억울한지 달래주려 해도 엄마, 아빠를 밀쳐대며 숨 넘어갈 듯 읊니다. 그날 밤, 여러번 깨어 물어대는 바람에 엄마는 잠을 설쳤고 심한 몸살에 걸렸답니다.

이런 유빈이를 보면서 이제서야 누워서 재롱부릴 때가 편하다는 말에 동감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유빈이는 잔소리꾼 엄마보다 아빠를 잘 따릅니다. 아빠는 유빈이가 자기를 '뽕'으로 생각한답니다. 피곤하고 문에 들어서는 순간 아빠는 유빈이 차지입니다. 온갖 책을 몇번씩이고 읽어야 하고 인형이란 인형은 모두 재워야 하고, 그 큰 덩치에 코돌이차를 타고 봉봉카 놀이도 해야 합니다. 아빠는 똑같은 놀이를 매일 반복하는 일이 정말 힘들다고 하면서도 유빈이 앞에서는 싫은 내색 한 번 못하답니다.

날이 갈수록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지는데 그중에는 엄마, 아빠 생각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말리면 더하고, 슬쩍 눈치를 보기도 하고, 감시의 눈길을 피해 큰 일을 저지르고야 맙니다. 혼내기라도 하면 "애가 누굴 달아서 이래?"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도록 성질을 냅니다.

좋은 것과 싫은 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유빈이에게 엄마, 아빠는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유빈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그야말로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아이로 자랄 것이고, 어른들 편한대로 이것저것 못하게 하면 기가 죽을텐데!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창립대회를 알립니다.

10여년간 우리나라 보육문제 해결에 힘써온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가 전국보육교사회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7월27일 창립총회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 창립기념대회를 여니, 귀환여려분 이이 많은 보육교사와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멋진 대회를 지행시다.

날 짜 : 1997년 7월26일(토) - 7월27일(일)

시 간 : 7월26일 늦은 7시부터 7월27일 낮 1시까지

장 소 : 송실대 사학봉서관 '백마당'

대 상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회원, 전국의 보육교사 및 보육 관계자

회 비 : 25,000원

준비물 : 세면도구와 필기구, 간단한 옷차림, 개인용품(식사는 27일 조식만 제공됨)

프 · 로 · 그 · 램 · 안 · 내

	26일 (토)	27일(일)
오전 8:00- 9:00		거상 및 아침식사
9:00-11:00		총회
11:00-12:00		기념식
12:00- 1:00		교사 및 나눔의 시간
오후 6:00- 7:00	접수 및 명배치	
7:00- 7:30	개회식 - 김봉여(인천) 초청공연	
7:30- 8:10	거조강의(윤선영) "보육교사의 연구일거를 통한 재교육 프로그램 모델 연구"	
8:20- 9:30	분과토론 국공립 - 미디어와 어린이 수원 - 이희봉여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오운정 - 초기적응 남부 - 식사지도 부산 - 부모협력작업	
9:40-11:20	교사발표및 문화제(공연형식) 소모임발표 교사숙려공연 공동체놀이	

1. 26일은 전야제 성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 거조강의는 작년 11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교사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윤선영선생님과 우리 회원들이 결합하여 각 주제별로 관찰일지를 작성해온 것을 토론했으며 진행된 결과들을 정리하여 윤선영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실 것입니다.
3. 분과토론은 준비한 주제가 간단히 발표를 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참석자들은 자신의 관심별로 각 주제에 들어가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4. 기념식은 창립총회를 마친 후 창립을 기념하는 내용으로 이동권리선언문 · 교사선언문낭독과 내빈들의 축하연사 등으로 할 예정입니다.
5. 숙박을 하지 않는 외부 참석자들은 참가비를 받지 않고 자료 · 배지 등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세상읽기

보육교사로 6월항쟁 10주년을 맞으며

위양자 · 본회 부회장

올해 6월은 여느해보다 더 뜻깊다. 데모, 최루탄, 투쟁, 호헌철폐, 직선제 쟁취, 국민운동본부, 넥타이부대 등의 단어들과 함께 기억되어진, '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 현대사에 길이 남는 값진 역사적 사건인 6월항쟁 10주년,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을 되돌아 보는 해이기 때문이다.

'87년 4월13일 호헌을 선언했던 전두환정권과 당시 "속지말자 6.29"의 장본인이었던 노태우정권은 그간 국민의 여론에 따라 좌궐을 치르고 있다. 또 당시 "직선제 쟁취"를 외쳤던 사람 가운데 한사람은 대통령이 되어 다시금 "속지말자 000"라는 구호를 생각나게 하고 있다. 그리고 10년전 "군부독재 타도, 민주 쟁취", "호헌철폐, 직선제 쟁취"를 외치다 고문으로 또는 퍼붓는 최루탄에 맞아 청춘에 목숨을 잃고 온국민에게 독재에 항거하도록 용기를 주었던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은 아직도 광주 망월동 구묘역을 지키고 있다.

10년전 24살의 대학 4학년이었던 사람은 두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아마 그때 함께 거리에 섰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

을까? 궁금하고 그립다. 지금은, 언론에는 보도도 되지 않은 채 지금도 대학에는 최루탄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낼까? 문민정부라는 이름으로 6월, 그날 거리에서 쓰러진 청춘과 항쟁정신을 자신의 집권을 위해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할까?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지 한번쯤 고민하기도 할까?

지난 5월18일에 광주에 다녀왔다. 17년이 흘렀다고 했다. 그날, 17년 당시, 광주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엄마, 왜?, 무서워, 불쌍해"를 연발하며 바라보던 7살 꼬마 아이는 문득 물었다. "엄마, 전두환이랑 노태우는 감옥에 갔지? 그럼 전두환이랑 노태우 말 잘 들은 사람들은 어디 있어?" ... 뜻밖의 물음. 순간 가슴이 찢어졌다. 그래 그렇다. 단순히 거액의 돈을 축재한 독재자가 아닌 사람을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 말 잘 들어서 사람을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마음이 아파서 병에 걸려 지금도 아픈 사람이 있고, 또 나쁜 사람들은 ...

어찌보면 뜻없이 그냥 궁금했을 이 물음

에, 80년 광주항쟁은 간접적으로 알았더라도 87년 6월항쟁은 거리의 데모대가 되어 살았던 엄마는, 그런 생각을 자주 바껴가려고만 했던 것 같아 너는 그럼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라고 자책해본다. 사실 결혼을 결심하고 아이를 낳고 하면서 꼭 우리 아이들에게 현대사의 교훈을 가르쳐야지, 개인의 삶에 파묻혀 결국 자신의 삶의 터전인 공동의 운명을 모른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몸소 보여줘야지 다짐하곤 했는데, 나 역시 역사는 바람직하던 그렇지 않던 '함께'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잊고 있었다.

이제 5월을 넘어 6월을 맞으면서, 10년 전 젊은 나를 살찌우고 지탱해주었던 신념과 희망, 지금 나일 수 있도록 주춧돌이 되준 87년 6월항쟁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을 까? 어떤 집을 지어야 내 아이들에게도 주춧돌이 되어질 수 있을까? ... 물어본다.

10년전에 나는 탁아에 대해 전혀 몰랐다. 89년 결혼을 해 아이를 낳을 무렵 우연히 선배의 소개로 달동네 8평짜리 해뜨는동산 이라는 탁아소를 알게 되었고, 내 일을 찾고 싶었던 차라 망설임없이 섣불리 발을 들여놓게 되어서 지금까지 왔다. 만 7년을 아이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다 요즘은 잠시 내 시간을 갖고 있지만 요즘 들어 더욱 그리운 아이들의 얼굴, 얼굴... 탁아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지금껏 오면서 문민정부 들어 잃어버린 것이 있다. 바로 아이들이다. "속지말자, 6.29"를 함께 외쳤던 김영삼 문민정부가, 권력유지를 위해 영유아보육법을 15대 국회 최초로,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탁아를 보육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더니, 슬쩍 아이들을 잊게 만들고 눈에 보기 좋은 어린이집들을 많이 만들었다. 크고 보기좋은 어린이집 대신에

아이들을, 아이들의 어린시절을 빼앗아가버렸다. 지나친 비약일까? 크고 보기좋은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주인으로 살게 해야하지 않나? 덩그러니 놓여있는 놀이기구들이 닳고 낡아지고, 항상 아이들이 있는 놀이터가 되도록 해야 한다. 10년전 6월 거리에서 참민주주의를 갈망했던 두아이의 엄마는, 10년이 지난 지금 보육교사로서 아이들이 주인인 보육정책, 아이들이 참사람으로 자라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그날의 신념과 의지를 되살리려 마음먹는다.

10년전 6월 온국민이 그랬던 것처럼, 97년 우리 보육교사들이 "함께" 하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아이들을 중심에 둔 보육정책으로 바꿀 수 있고, 보육교사들도 새세대를 키우는 소중한 사람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탁아소별곡

다우리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

☺ 이야기 하나 - 묘한 약속

블록놀이를 하느라고 아이들이 조용해지자 갑자기 적막함이 밀려드는 듯 하였다. 바로 이때.

지 웅 : 이모! (영거주춤 부르며, 쳐다본다)

선생님 : 왜?

지 웅 : 이모, 지용이가 크면 아버님이라고 부를거예요?

선생님 : 왜?

지 웅 : 아빠랑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했거든요.

선생님 : ???

☺ 이야기 둘 - 황설수설

비가 오고 바람이 몹시 부는 날.

오전수업을 하기 위해서 책상 앞에 빙 둘러 앉아있는데.

현 석 : 이모, 바람이 불면 영마랑 집에 가야해요.

선생님 : 왜요?

현 석 : 바람이 차가우니까요.

미 영 : 아니야, 바람이 많이 불면 집에 갈 수 없잖아.

현 석 : 아니야, 옷을 입고 가면 갈 수 있어.

(미영이가 인정하지 않은 듯 선생님을 쳐다보자, 다짐이라도 하듯)

이모, 내일 키가 클거예요. 현석아.

선생님 : ???

☺ 이야기 셋 - 이렇게 애원하는데...

점심을 먹고 난 후 목욕하는 시간.

총대 지휘 명현이삼촌이 아이들 목욕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다. 그런데 장난이 심한 지민이와 보라가 목욕하는 것은 편전이고 물장난을 하느라 소란스럽다.

명현삼촌 : 애들아 빨리 씻자(애원의 목소리다).

지민·보라 : 싫어 싫어.

명현삼촌 : 애들아 물장난 그만해. 삼촌 옷이 다 젖잖아(울먹이는 목소리다).

지민·보라 : 싫어. 허허허 재미있다.

급기야 삼촌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물장구를 치며 물을 뿌리며 노는 두 아이들을 달래지 못한 명현삼촌.

명현삼촌 : 애들아 너희들 자꾸 그러면 나, 울꺼야 (???)

☺ 이야기 넷 - 신령님이 볼쌍해!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매일 한번씩 연극을 보러가는데 이번달에는 '금도끼, 은도끼' 연극을 보러갔다. 모든 아이들이 아주 진지하게 연극을 보고 있었다. 연극이 한참 진행되는 중 나쁜 나뭇꾼이 나오는 상황이 다. 나쁜 나뭇꾼이 신령님께 자기 도끼는 금도끼라며 꺼내주는 도끼마다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때 옆에서 보고 있던 지용이 몹시 애가 탔던지.

지 웅 : 선생님, 신신령님이 너무 힘들겠어요. 자기 것인데 자꾸 아니래요. 휴우~ 너무 힘들꺼야!

이날 저녁 집에 돌아간 지용이가 영마와 나눈 대화.

영 마 : 지용아, 오늘 연극 재미있었어?

지 웅 : 영마, 너무 힘들었어 (ㅠ)

올해부터 드디어 기념일로 제정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제사 제자리 찾기에 한 걸음 나선 5.18 당일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궁금하다. 일본 땅에 있으니 한국의 소식을 자세히 듣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렇지만 피 흘리며 목청껏 외쳤던 5.18 남들의 억눌린 함성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미하게나마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오사카에서도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5월 18일 많은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념행사가 있었다. 이날 모임은 1948년 4월24일 한신교육투쟁(限神教育闘爭) 49주년 집회였다. 이것은 한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지만 이곳에 사는 재일동포들에게는 민족의 자존심과 교육의 의지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한다. 해방 이후 50년이라는 세월, 한국과 조선이라는 국적을 지키며 살아

가고 있는 재일동포들이 한국인이라는 자신의 본바탕을 후손들에게 바르게 이어나가기 위해 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싸웠던 이 투쟁은 차별과 편견의 일본 사회속에서 모질고 눈물나는 것이었는데...

처음 민족교육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왠지 낯설게 다가왔다. 일제시대엔 쓰던 말 같기도 하고 유신시대 흔히 들었던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관제적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느껴졌다. 그렇지만 그런 단어의 낯설음은 이제 이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뿌리를 확인하기 위한 기나긴 안간힘으로 느껴진다.

한신교육투쟁과 민족교육, 과연 어떤 것일까?

아직 모르고 있는 지탁연 식구들을 위해 그 역사를 조금 설명해보려 한다.

1945년 해방은 되었지만 강제징용이나 장병, 기타 생계를 위해서 일본에 와있던 2백5십만의 재일동포들이 일시에 조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장기화되고 있는 귀국 과정에 차를 기다리던 다수의 동포들은 1945년 10월에 발족된 재일본조선인연맹이 펼쳤던 귀국 사업과 교육사업(민족학교설립)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분리 신탁통치의 혼

란과 6.25전쟁으로 조국으로 돌아갈 길이 막히게 된 동포들은 조국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면서 식민지 지배하 황민화 정책에 의해서 빼앗긴 민족성을 다시 되찾기 위해 우리말이나 역사 등을 배울 수 있도록 민족교육의 현장을 세우는 데 열심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일동포 민족교육에 대하여 일본정부와 G.H.Q(연합국총사령부, 실체는 맥아더가 이끄는 아메리카점령군)는 노골적인 탄압정책을 취했다. 1948년 1월 일본 문부성은 "조선인학교 취급에 대해서"라는 통달을 내렸는데, 그 내용은 ①재일조선인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공·사립학교에 취학해야 한다. ②조선인이 설립한 조선인학교는 정규학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각지 민족학교에 대한 폐쇄령을 발령하자, 재일동포들은 민족학교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해방민족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상, 이념을 막론하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든 동포들이 일

어섰다. 특히 동포가 다수 거주하는 오사카와 고베에서 4월말에 벌어진 투쟁은 그 규모와 사회적 영향에 있어서 해방 후 최대의 대중집회였는데, 매일같이 1만명에서 3만명 규모의 집회나 시위가 열렸고 동포 대표가 행정당국과 교섭을 했다. 그 와중에 오사카에서는 당시 열여섯살이었던 김태일 소년이 경찰대에 의한 총격으로 사망했고, 고베에서는 전후 일본에서 유일한 비상사태가 발령되어 1,700여명의 동포가 체포, 구속되었다. 이러한 희생을 통해 고베나 오사카에서는 행정대표와 동포 대표간에 각서가 교환되었다. 일정한 조건이 전제되었지만 민족학교가 인가되었고, 공립 소·중학교에서의 과외수업으로 민족교육을 행하는 '민족학급' 설치 등이 합의되었다.

이러한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위한 투쟁을 "한신교육투쟁"이라고 부르는데, 지금까지 "재일동포가 민족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일치단결해 싸워 승리"했던 이 역사적 사건은 많은 재일동포들의 긍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후 일본정부와 G.H.Q는 무장탄압 정책을 취해 각지의 민족학교를 강제폐쇄시켰는데(오사카에서는 41개교 중 40개교가 폐쇄됨), 그 결과 거의 모든 동포아이들이 일본학교에 다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재일동포 민족교육의 불은 꺼지지 않고 1950년대에 들어서서 파괴된 민족학교를 재건해 나갔고, 현재까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전국에 약 160개교가 있으며 2만명 가량의 아이들이 취학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민족학교에 다니는 동포아이들은 전체의 10%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90%의 아이들은 일본학교에 다니고 있다.

지금 동포아이들의 민족교육을 위해 일하고 있는 민족강사들과 학부모들은 "모든 동포에게 민족교육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일

본학교에서의 재일동포 민족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족학급 설치와 제도 보장(민족학급의 공식화와 지원)운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시대는 많이 바뀌었지만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일은 바뀔 수 없는 존재의 당위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일세기 혼란의 역사속에 빛어진 재일동포들은 오늘도 이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현재와 후세들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민족교육 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해 나가고 있다.

오사카에서 본 편지...

1997년 오사카의 5.18

변미양 · 본회 회원, 일본 오사카 거주

[찾고 있습니다]

보육사들의 대변자로 생생하게 태어나고자
하는 『우리네 아이들』이 사람을 찾습니다.
정직하고 사람, 글씨를 좋아하는 사람,
책을 많이 읽는 사람, 발 넓은 사람,
동등한 마음과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
없이 기다립니다.
그런 분, 연락주세요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
(02)75-8505

보육계 풍향

한국보육교사회 창립총회

일 시 : '97. 7. 26(토) 19:00
-27(일) 13:00
장 소 :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백마당'

참가비 : 25,000원

프로그램 :

7월26일 축하공연

학술대회

문화제

7월27일 창립총회

기념식

고사 및 나눔의 시간

참가대상 : 전국의 보육교사 및
보육관계자

숙박을 하지 않는 비회원은
참가비를 받지 않고 자료집 관
매만 합니다.

문 의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02) 275-8505

심각자 창작활동 강습회

서울 - 1차: 7.30(수)-7.31(목)
2차: 8.1(금)-8.2(토)

장소: 잠실 향군회관 대강당
부산 - 1차: 7.28(월)-7.29(화)

장소: 해운대 조선비취호텔

강사: 심각자(유아활동)
김영만(유아미술)

차인석(지점토공예)
문의: 한국새싹교육회
(02) 563-5112-3

김은순 유아창작무용 교 사하계강습회

일시: '97. 7. 24(목)-25(금) A조
'97. 7. 28(일)-29(화) B조

장소: 과천시민회관 체육관
참가회비: 62,000원

(온라인 회원 57,000원)

증정: 교재, 음악테일, 점심,
부채, 태극기, 간식

비디오: 현장접수시 50% 할인
온라인:

농협 211084-52-129286 김은순
우체국 100313-0114769 김은순

문의: 김은순 유아창작무용연
구회 (02) 502-0253

발표회와 EQ식 영어학습 지도를 위한 '97 전국교사 실기강습회

일 시: '97. 8. 4(월)-5(화)
장 소: 적십자회관

회 비: 60,000원
(중식, 교재비 포함)

온라인:
국민은행 115-21-0619-476

김용화
(온라인 신청 후 연락바람)

문의: 한국어린이 소창연구원
(051) 867-8277, 8278

특별혜택: 2인 이상 단체 참석
자 비디오테일 제공

'97 제2회 전국유아국악 특별강습회

일 시: 미정(전화로 문의)
장 소: 명지대학교내 초등학교
강당(서울) 6층

강습회비: 35,000원
(중식, 간식, 교재, 테일 포함)

대 상: 전국유아교육기관 원
장 및 교사, 학생,

초등학교 교사 등

신 청: 당일 접수 안됨

온라인:
상업은행 310-07-077118 정성자

(강습회 참석시 온라인 영수증
꼭 지참)

준비물:
▶국악기

▶양악기-템버린, 심벌즈,
마라카스, 트라이

앵글, 박자목 중
2점 이상

▶활동하기 편한 옷, 덧신

문 의: 한국어린이국악교육연
구회 (02) 373-7973

영아교사 모임

윤선영선생님(호서대 보육
교사교육원 강사)과 함께 하는
영아교사소모임이 진행되고 있
습니다.

지난 5월29일 첫모임을 갖
은 뒤 2차례에 걸친 주제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1회 오리엔테
이션에 이어, 2회 영아의 행동
수정 3회 영아의 요구에 따른
교사의 반응에 대한 주제토론이
있었고 4회에는 공격성을 보이
는 영아, 영아의 식사지도(젖병
떼기 등)에 대해 교사들이 관찰
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할 예
정입니다.

건강교사 모임

지난 4월 인도주의실천의사
협의회(이하 '인의협')가 보육시
설 아동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제안한 건강교사 교육소모
임이 본회와 공동육아어린이집
교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6월30일 어깨동무어린이집
에서 첫 모임을 갖고 모임운영
에 대한 논의를 하여 앞으로 3
개월간 1차 건강교사모임을 진
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모임
은 앞으로 1년간 4차 모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의협 회
원인인 유소아과 김유호원장님
과 정기현선생님이 이 모임에

소식과 소식

지속적으로 참여하시고 그외에
도 인의협 소속 전문의 여러분
들이 도움을 주십니다. 1차 모
임은 14명의 건강교사로 구성되
었고, 매회마다 주제를 정해 하
습하고 교사들이 작성한 건강일
기를 통한 토론 및 상담이 이루
어집니다.

본회 남미영회장님 일본 으로 출국

본회 남미영회장님이 일본
오사카로 7월3일 출국하였습니
다. 이번 출국은 본회와 한일보
육교류회가 진행하고 있는 연수
의 중간평가에 참여하실 목적과
양국 교류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남미영회장님은 4명의 연수
단을 격려하고 함께 생활을 하
다 6일 입국할 예정입니다. 또
한 정희연한국보육정보연구소
소장님도 연구소주체의 일본연
수를 상의하기 위하여 동행하였
습니다.

사람들

*출산하셨습니다.

인천 세쌍둥이어린이집 박
은하선생님이 건강한 아들을 출
산하셨고, 출산휴가중인 김량희
선생님도 건강한 딸을 출산하

셨습니다. 더운 여름에 출산하시
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몸조리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하셨습니다.

안산공단어린이집이 개원하
면서 진달래동산의 서현경선생
님이 원장으로, 김실이선생님이
유아반주임으로, 박공미·박은
하선생님이 교사로 임용되었습
니다. 축하합니다. 새 시설에서
더 좋은 보육활동 펴가시길 바
랍니다.

연합회 6월일지

- 2/집행위원회
- 3/정책개발위 회의
- 5/편집회의
- 9/집행위원회
- 10/창립총회대회준비팀
- 11/여연 조직위원회 회의
- 12/보육교사회 건준위 회의
- 13/영아교사교육모임
- 16/집행위원회
- 20/창립총회준비팀 모임
- 건강교사교육모임
- 21/국공립교사회 창립식
- 23/집행위원회
- 25/창립총회대회준비팀
- 27/정책개발위 회의
- 29-30/보육교사회 건준위 합숙

* 이번달 지역위원회 소식은
입니다.

■■■ 편집부에서 ■■■

❶ 지탁연의 새로운 도약으로 '우리네 아이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지탁연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만나왔던 '우리네 아이들'이 이번호로 마감되고 9월호부터는 '한국보육사회'라는 새 이름, 새 모습으로 '우리네 아이들'이 발간됩니다.

'우리네 아이들'이라는 제호는 변함이 없으며, 진정으로 보육교사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지가 되도록 편집부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동안 지탁연을 아끼고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다 깊은 고민과 활동을 펼칠 한국보육교사회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 바랍니다.

❷ 이번호는 합본호로 나갑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1/2월과 7/8월에는 합본호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엔 발간되지 않으니 9월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❸ 회원배가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우리네 아이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자료회원 배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권해주세요.



❹ 회원 여러분의 생각과 원고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교사의 대변지로, 다양하고 도움이 되는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편집부의 헌신과 함께 회원들이 보내주는 각종 아이디어와 원고가 풍부하다면 더 없이 좋은 소식지가 되리라 믿기에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러이러한 글을 실었으면 좋겠다, 누구누구가 이런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데 참신하더라, 이런 일이 있더라 취재해서 실었으면 어때요 등등...의 아이디어 제공과 교육현장과 생활현장에서의 글을 보내주시면 감사 또 감사하겠습니다.

❺ 자료회비를 받았습니다.

1년 구독 : 이정수, 송미영, 김영미,
정순옥, 김현숙, 백주화 님의
자료회비를 받았습니다.

구독기간이 마감되어 재구독을 원하시거나 구두신청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네 아이들' 게재번호로 자료회원 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후 연합회 사무실로 전화 확인해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특히 본인 어인 타인명이나 단체명으로 송금하실 때에는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려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합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영유아 교육의 이론 및 실제프로그램과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정기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뜻으로 좋은 내용, 알찬 정보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1) 소식지 '우리네 아이들'을 매달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우리네 아이들'의 본 회에서 제작하는 각종 자료집 및 책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원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 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 신청은

- 1)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을 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 우편발송시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분의 성함과 직업, 나이,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고 어떻게 '우리네 아이들'을 보시게 되었는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3) 신청후 회비는 다음으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 4) 송금 후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주십시오.

다 음

신청접수: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편집부 앞
☎ 275-8505~6

송금구처: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6개월 구독 13,000원 1년 구독 25,000원)

어린이집 · 놀이방의 상해, 화재보험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지역사회복지연구소 연구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Korea Daycare Information Research

늘푸른대리점

보육시설전문대리점이 충실히 안내합니다.

- 보육시설이 위험을 발견하고 방지대책을 세워 재산손해 · 인명손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보육시설이 가입해야 할 보험의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 각 시설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안전한 보육환경, 적절한 보험선택, 수익금의 보육사업재투자를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 보육사업 전문가로 구성되어 보육시설에 실속있는 도움을 드립니다.

아동사고!

5,775원으로 최고 1억 1천만원 보상에
작은사고에서 큰사고까지!

상담전화

TEL. 271-1547~8
FAX. 271-1548
BP. 015-943-3954

늘푸른대리점

어린이집 · 놀이방 정보유 35동선으로 제공하는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보육시설의 보험가입과 상담편의를 위해 개설했습니다.

구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비고	
원아상해손해 (1인당)	사망, 후유장애 1,000만원 의료실비 100만원	2,800원				1인당	
배상책임손해 (1인당)	대인 1인당 1사고당 1억원 대물 1사고당 1,000만원	2,415원					
교직원상해손해 (1인당)	사망, 후유장애 1,000만원 의료실비 100만원	6,510원					
재산손해	전통 및 일기비중 (보험가입금액 100만원당)	화재손해 기본보험료(화재요율 45% 적용)					화재보험 일반공인 차량 사용요율의 45% 적용 기준 (화재보험 일반공인 기본요율) ×(1±할인) 할증요율(45%)
			1급	2급	3급	4급	
		1동지	6,200원	9,600원	11,200원	14,200원	
		2동지	7,200원	12,600원	14,200원	17,200원	
		3동지	9,200원	15,200원	16,700원	19,700원	
		4동지	11,300원	18,000원	20,400원	22,600원	

《늘푸른 대리점에서 추천하는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